

하나님 (알라)...

하나님의 최후 사도인 “무함마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신탁

알라 유일성을 확인하는

증거, 증명, 입증

홀륭하신 “무함마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

메신저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기적

및

코란의성구

저술가:

무함마드 엘싸예드 무함마드

Muhammad El-Sayed Muhammad

번역가:

라나 사미르

Rana Samir

연락처(Mob. No.): 01006656550

## 머리말

###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우주의 주님이신 땅, 하늘을 창조하신 심판의 날을 주관하신,  
어둠과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고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그분의 마지막 사도로 믿는다고 고백한다.

생각이 잘안된 경우가 3 가지가있다.

- 예전의 "소비에트연방"과 공산국가에서 생겼던 일처럼 이슬람을  
촉구하였는데 **알라**의 존재를 부인하였다. 그것보다도 그 부인한  
이념을 확산하였고 계속 이슬람을 장애하였다.(이슬람의 장애가  
되었다.) 게다가 불공평한 그는 자기 국민들을 고문하였고  
굶게만드는 탓으로 그때는 애들이 흠쳐먹는 현상이 확산되었다,  
누구나도 **알라**를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을 죽이고 **알라**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을 억지로 강요하는 경우이다.
- **알라**의 메신저의 이슬람 신탁을 촉구하여 잘들었고 믿는  
척하였는데 계속 자기 정신과 마음이 손상되고 죽어서 당할  
부당한 운명, 처벌과 심판을 잊으면서 자기 번덕과 욕망에  
따라가는 경우이다.
- 이슬람 신탁의 입증, 증거들을 누구한테 알려주는데 듣기도  
싫다는 경우이다.

예를들어 "북한"은 공산주의만 받아들이고 이슬람 신탁에 대해  
듣기도 싫고 **알라**의 존재를 부인한다.

그래서...

이 본서는 신앙하게 해주고 **알라**의 무함마드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믿고 **그분**이 촉구하였던 이슬람을 확산하는데 그목적이 있다.

**알라**은 자기 예언자와 메신저가 살아있든 지 죽었든 지 계속 방어하시고 지키신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제일로 보호하셨다. 무함마드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이슬람 교의를 확산하면서 메신저 중에 제일로 핍박당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주 창조하신 **알라**의 존재와 유일성을 확인하는 다양한 정확한 증거, 입증.
- **알라**의 속성과 무슬림 신자들 이**그분**께 가진 큰 영광.
- 인간의 정신은 쉽게 인식 못한 **알라**의 기적.
- **알라**을 믿으면 **그분**의 메신저 나예언자를 확고부동하게 반드시 신뢰해야됨.
- 종교세에 대한 신앙심.
- **그 분(알라)**께서 보내신 사도와 선지자에 대한 신앙심.
- **그 분**의 천사들에 대한 신앙심.
- 운명(알-파다르)에 대한 신앙심.
- 심판의 날에 대한 신앙심.
- 올바른 지침은 어떤건가?
- 올바른 지침은 무함마드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이슬람신탁에서 찾을것이다. 증거도 같이 첨부됨.
- 무함마드사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이슬람 신탁에 대해...
- 무함마드 메신저(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도라는 것을 입증하는증거, 기적, 코란의 성구.

( 그 부분은 서반구의 대학자와 사상가들이 이슬람과 무함마드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믿게 한이유였다. 그 부분에 나오는 그다음으로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말씀은 가장 결정적이고 웅변적이기 때문이다. 그 코란 하고 무함마드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말씀을 읽어보면 1400 년전에 있었던 아무도 전혀 모르는 과학적 진실 내용이 나와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었으니 성코란은 **알라**의 말씀이고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진짜  
**알라**의 사도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 그 학자와 사상가들이 이슬람 믿는 후 말 사례.
-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이슬람  
 신탁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 사례.
- 무함마드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신탁인 "이슬람"이 **하나님**께 마지막 신탁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증거, 증명
- 수니파 (이슬람교의 2 대종파중의하나)의 특성..수니파는  
 무함마드무함마드관습을 어떻게 따라갔는지..
- 이슬람교는 평화 확산, 경제 번영과 문명 발전의 주요 원리라는  
 것을 확인하는 증거
-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인류한테 받으실 자격과 유한한 인류는  
**하나님**께 받은 자격.

##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계시나?!

###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

AD 18세기까지 인간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진리를 옹호하곤 하였다. 그런데 그다음에 1770년에 유럽에서 신성을 부인하고 무신론을 전파한 책이 발행되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확실하였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번덕과 욕망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알면서도 계속 은혜를 모른 척하고 부인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분의 예증을 대지 안에서 그리고 그들의 영혼 속에서 보여 주라니 이것이 진리임을 그들이 알때까지라 주님이 모든 것에 대한 증인이라는 것으로 충만하지 않느뇨"

{성코란 41:53}

"그 들은 그것을<sup>1</sup> 마음속에 진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불의와 거만 때문에 이를 부정하고 있으니 좌악을 저지른 자들의 종말이 어떠한을 보라" {성코란 27:14}

논리적으로는 우상한테 노비가 있으면 우상의 명령이 커도 불가능해도 다해야된다. 우상이 마음 대로 명령할 수 있고 하지 말라고 할 자격이 있다. 알라께서는 우주, 피조물, 인간을 다 창조하셨고 다다스리게 하셔서 인간을 다 명령할 수 있고 법을 제정하시고 그법을 지키라고 할 자격이 있긴 하지만 알라께서는 인간이 못하는 부담스러운 것을 명령하지 않으신다. 그 분께서는 심판도 주관하신다. 명령대로 복종하면 영원한 천당로 가는 반면에 알라을 거역하면은 징벌을 받을것이다. 알라께서는 이러한 심판을 하실 자격이 있다.

"그분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지 아니하나 그들은 심문을 받니라" {성코란 21:23}

<sup>1</sup>예증

그렇다면 **알라**의 자비와 축복은 노여움 보다 먼저있다. 그래서 **알라**께서는 신앙, 정의, 경건을가진, **알라**의 모든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이 구동성으로 전파한 종교이면, 이것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현세와 내세에서 위대한 보상과 아름다운 천당을 준비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평등하셔서 이것을 거역한 불신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징벌도 준비하셨다. 그러므로 창조주를 믿는다면 **그 분**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분**께서 금기한 모든 것을 삼가야한다. 그리하면 **그 분**께서 약속한 내세의 영원한 축복을 얻을 것이고 현세에서도 **그 분**께서 베푸는 모든 종류의 은혜를 만끽하는 행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창조주를 불신하고 **그 분**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이 세상도 잃고 저 세상도 잃게된다. 현세와 내세에서 **그 분**의 노여움을 살 것이고 가혹한 징벌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무신론을 전파한 불신자들은 내세보다 오히려 현세쪽을 더 좋아해서 궁핍하고 무지한 삶이 될것이다.

이러한 무신론자들은 자기 가짜의 신탁할 때 정신에만 있는 현실과 상관없는 철학에 의지한다.

예를들어:-

불량이 있는 벽을 보면 한가지 보이지않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이불량이 벽의 불량이 아니라 벽을 만든 사람이 불량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보이지않는 습도 같은 요인이 진짜 불량 이유라는 것을 모른다.

### 우주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생각 및 무효화에 대해...

그 자들이 종교는 진리가 없고 그냥 인간의 본능을 반영하고 우주의 땅에서 하늘까지 생긴 모든 일은 잘 아는 법인 "자연법"이라는 것에 따라 생긴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도 처음에만 있었던 거고 우주를 다스리게 하였을 때 떠났고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주와 상관없고 생물체 나무 생물체와 상관없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인간이 죽어서 다시 전송해서 심판을 받아야되는 것을 부인한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고 죽으면 땅이 먹는다"라는 주장이었다.

무신론자도 자말 차례

- "왈테르" **하나님**이라는 것은 처음에만 있고 그다음에 우주와 상관없다는 주장

우주는 시계와 같다. 처음에만 만든 사람이 시계 모양을 정해서 만들고 다스린다. 그 다음에 관계를 끊는다.

- “해음”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혀 없다는 주장  
우리 공장에서 시계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우주는 만들어지는 것을 못 보았다. 어떻게 우주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고 추정하냐?!!

그런데 이런 말들은 다 환상이다. 그들의 마음은 다 실로 장님이 되었다.

"그들은 마음과 귀로써 지혜를 듣고 배우기 위해 지상을 여행하지 아니 했더뇨<sup>2</sup> 실로 장님이 된 것은 그들의 눈들이 아니라 그들 가슴속에 있는 마음들이라" {성코란 22:46}

그 무신론자들이 처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였는데 그 다음에 예언자, 사도도 부인하였고, **알라**께 보내온 명령, 경계, 금기 등이 나와있는데 종교세도 부인하였고 천사들도, 운명도, 세상에서 생기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생기기전에 알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였다.

게다가 죽어서 다시 전송되는 사신이 심판을 받는 것도 부인하였고 **하나님**에 복종하면 영원히 천당에서 살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

<sup>2</sup>여행을 하면서 또는 우주를 관찰하고 그 생성과 운행질서를 숙고하여 볼 때 이 우주의 창조주의 존재와 유일성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느뇨?

징벌을 받을 것도 부인하였고 그리고 천당과 지옥도 부인하였다.  
그들은 자기 욕망을 신으로 보았다. 그들은 내세보다 현세가 좋았다.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신으로 모시는 자를 보았느뇨 그대가 그에  
대한 보호자가 된단 말이뇨"<sup>3</sup> {성코란 25:43}

그래서 무신론자들의 주장은:-

- 1- 보이는 것에만 진리가 있고 보이지 않는 것에는 진리가 없다.
- 2- 우주 창조주 **하나님**은 없다.
- 3- 우주는 무 (無) 에서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
- 4- 현실을 알고 싶으면 종교에 아니라 자연법에 의지해야된다.

그 주장 무효화를 입증하는 답장..(수니파 학자의 주장)

- 1- 자연은 우주의 그냥 진리이므로 설명하지 않는다. 하지만 종교는  
우주가 왜 창조되었는 지 알려준다. 과학적 발견도 한다.

예 1):

예전에 인간이 하늘에서 비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냥  
**알라**께서는 하늘을 명령해서 비오라고 하시니까 비가 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비가 어떻게 내려온 지 과학적으로도 자세히 알게  
되었다. 바다의 물이 증발되어서 비가 온다.

과학이 땅과 하늘, 바다 연결하는 법을 발견해서 그 법들은 우주  
시스템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는 우주 창조주하고 우주  
시스템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것을 입증한다.

---

<sup>3</sup>돌을 숭배하던 한 불신자가 있었는데 그가 숭배하던 돌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면  
숭배하던 돌을 버리고 발견한 두번째 돌을 숭배하곤 하였다. 이렇게 자기 취미와 감정에  
따라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해 예언자는 슬퍼한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 10 권 op. Cit, p.45).



예 2):

우주는 설비처럼 외관으로 보면은 이 설비는 움직이긴 하지만 이 설비를 분석해 보면은 이 설비에 들어가 있는 톱니바퀴와 전자 회로가 어떻게 복잡하게 연결되었는 지 볼 수 있다.

논리적으로 이 설비는 알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 설비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다.

우주도 마찬가지이다. 알아서 궤도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우주 시스템을 창조하는 **하나님**이 있기는 한데 우리는 어떻게 창조하셨는 지 모른다.

이예를 보면 **하나님** 존재에 신앙이 강하게 생기게 된다.

거짓말 하는 무신론자들이 이 우주를 창조하는 **하나님** 없다고 하는 말은 다 불가능하고 맞지 않는 말이다.

2- 우주는 무(無)에서 존재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 사도 및 종교세에 따라 우주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의 특성은 인간과 다르다.

3- 우주는 우연히 존재 되었고 물질은 무한하고 창조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거기에서 현대 과학은 물질의 모든 종류는 무한하지 않고 분해 및 변화도 한다고 입증하였다. 모든 변화와 분해되는 것은 유한한 진리는 잘 알려져있다.

예 1):

화학 및 물리학자한테 물질이 소멸되느냐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한다.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느냐 물어봐도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분해되어서 다른 물질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또 그 변화되었던 물질은 소멸되느냐 물어보면 아니고 또 다른 물질로 변화될 것이라고 대답한다. 계속 물어보면 똑같은 답을

할건데 그럼 언제까지 다른 물질로 변화될 것이냐?! 변화되지 않는 무한한 물질이 무엇이냐?! 물어보면은 대답못할 것이다. 진실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의 사색 논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한하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알라 ” 밖에 없다.

예 2):

별에서 살고 있는, 말을 듣기만 할 수 있는데 말할 수 없는 생물이 지구로 내려온다고 상상하면은...

그 생물이 인간이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알기 위해서 계속 조사하고 있는 데 바람이 불 때 가지 2 개가 같이 마찰되면 소리가 나온다고 밝혔다. 그래서 그 생물은 인간 말의 가능성 신비를밝힌 줄 알았다. 인간의 턱뼈 위와 아래 2 개 있는데 그 2 개는 마찰되어서 소리 나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물론 아무 것이나 2 개가 마찰되면 소리가 나오는 것은 잘 알려져있고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생물이 밝혔던 그 신비는 진실로 사람이 말하는 가능성의이유로 맞는가?!

당연히 아니다.

이거는 착각이고 환각이다. 무신론자들의 철학과 똑같다. 다 착각한 주장이다.

예 3):

무신론자 한 명은 의문을 던지었다. 니들의 **하나님**이 움직일 수 없는 돌을 창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네” 나 “아니다” 대답 2 개 중에 하나로 대답할 줄 아는데 2 개의 경우에 그 무신론자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라고 대답하면 무신론자는 “그럼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있다. 돌을 움직이게 하는것이다” 라고 할 것이다

“아니다” 라고 대답하면 무신론자는 “그럼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있다” 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네” 나 “아니다” 라고 대답 안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의문은 무슨 의문인지 정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대답할 것이다.

- 4- 감각은 인간이 알고 싶은 모든 것을 알려주는 방법이 아니다. 감각으로 알게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정신으로 알게 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래서 종교와 과학 사이에 갈등이 없다. 하지만 종교는 과학이 지식을 얻게 해준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하는데 모든 지식을 얻게 해줄 수 없다. 지식은 소설로 얻을 수 있고 정신적 결론으로 얻을 수 있고 예언자, 사도와 종교세로 얻을 수 있다. 똑똑한 지식인이 지식을 얻을 때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얻어야한다.
- 5- 무신론자들은 경험 및 보기밖에는 과학을 밝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틀리다. 소설이나 정신적 결론이나 예언자, 사도, 종교세로 과학을 밝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 1):

예전에는 사람들이 범선을 나무로 만들곤 하였다. 물에 뜰 수 있는 것은 물보다는 가벼워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 때는 한명이 쇠배도 물에 뜰 수 있다고 하였을 때 나머지 사람들이 안 믿었고 거짓말이라고 하였다. 입증하려고 경험까지 하였는데 쇠갈창을 준비해서 물에 던진 후에 물에 잠기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다 믿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경험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그 때는 쇠접시를 던지면 떠오르게 한 것을 보았을 것이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못 봐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주장은 틀리고 착각한 철학이다.

예 2):

20 세기초에 망원경이 발명되었을 때 원시적이었기에 하늘을 그 망원경으로 보면 빗처럼 많은 사물을 보았다. 증기 및 가스로 된 사물의 결론을 내렸다. 근데 망원경이 발전해서 다시 봤을 때 이 사물은 별인데 지구와 거대하게 떨어져 있다고 밝히게 되었다.

위에 나와있는 예들은 경험 및 보기만으로 과학을 밝히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2 개의 방법에만 의지하면 안 된다.

## 제 (1) 파트의 정답

### "우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나?!"

예전에 창조주 하나님 존재는 자명한 일이었다. 거기서 신성과 하나님 존재 부인하는 불신자는 별로 없었다.

그래서 종교세는 모두다 인간이 하나님 존재의 인정함에 의지한다.

위에 있는 의문을 다른 식으로 하면은:

"무한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전에 아무 것도 없고 후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은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인가, 아니면 물질인가??"

"가능 에너지"나 "변경 담당자"라는 법은 밝혀져있다. 그 법은 물질이 무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다. 따라서 우주 전체는 무한하지 않는다. 그 법 내용은 온열이 계속 열적에서 무열적으로 전환되는데 반대는 안 된다.

그러면 높은 열적에서 낮은 열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낮거나 무열적 에서 높은 열적으로 전환 못 된다.

따라서 존재물의 온열이 다 똑같게 되는 시간은 그 때는 모든 화학 및 자연적 공정이 다 끝내 없어질 다음에 삶이 끝날 것이다.

그래서 명확히 우주는 무한하지 않는다.

과학 조사는 다 -우연히-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시작이 있다.

우주는 창조되었다는 것(즉 알라께서 창조하셨다) 및 존재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있다는 것 사이의 분쟁은 없다.

이 파트는 결론으로 신성을 부인하는 공산주의자와 무슬림 사이의 토론을 언급한다. 그 토론은 러시아에서 "레닌"이라는 사람때문에 일격이 일어난 후에 생겼다. 그 때는 수 많은 무슬림, 기독교인, 공산주의자 등이 참석하고 있었다.

## 토론

공산주의 지도자는 어느 날~

"사람들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틀리고 환각이다.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으면 태양과 딸처럼 봤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그 **하나님**이 아주 크고 거대하고 위대하다고 소개하였는데 토라, 복음과 코란에서 똑같은 말이 나온다. 하지만 요즘은 우리 망원경, 한미경과 같은 모니터링 도구로 아주 작은 소형물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 라고 얘기하였다.

무슬림 토론자인 "아보 압드 엘 카림"은:

"무신의 공산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못 봐서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게 되었다. 그럼 자신의 몸에 영혼이 있는가? 자신의 머리에 뇌가 있는가??" 라고 물어봤다.

무신의 지도자는 당연히 있다고 대답하였다.

무슬림자는 "그럼 영혼을 봤는가?? 뇌를 봤는가?? 어떻게 생겼는가??"라고 의문을 던지었다.

영혼이나 뇌를 안 봐도 존재를 인정하는데 영향이 있으니까 인정하는 것이다. 그럼 **알라**의 큰 영향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안 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가?!

"그들은 당황하였노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인도하지 아니 하시니라" {성코란 2:258}

그래서 무슬림자들은 기뻐했고 박수를 친 반면에 무신의 공산주의자들은 부끄러워졌고 땀짓을 하였다.

그 토론때문에 소련 당국이 무슬림인 "아보 압드 엘 카림"을 체포하였고 총살로 심판하였는데 **알라**께서는 살려주셨다 - 다른 얘기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온다 -

## 본능과 본성에 따라서 우주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가 ?

모든 피조물은 본능적으로 조물주의 존재를 믿으려는 본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물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거룩하고 고귀하며 위대하다는 것을 확신하려는 본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본능은 기초 수학에서보다 자연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줄곧 환경에 노출되어 자연의 본능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입증할 증거는 필요하지 않는다.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 모든 인간은 본능을 갖고 태어나지만 그를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배화교인으로 만드는 것은 그의 부모입니다. 그것은 마치 동물이 새끼들을 낳는 것과 같습니다. 수족이 절단되어 태어난 동물을 보았습니까?}

이 어록을 전하고 있는 부카리가 말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재난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곤 한다. 인간은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난관에 처하기도 한다.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인간은 비록 그가 줄곧 창조주를 부정하고 우상을 숭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하늘을 향하여 주님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구한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동물도 상처를 당하여 심하게 아플 때는 고개를 위로하고 그의 눈은 하늘로 향한다. 인간은 그가 재앙에 처할 때면 서둘러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달라고 주님께 간구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가장 좋은 증거**이다.

이 우주가 창조주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그 창조주가 바로 온 우리의 주님이시자 하늘과 땅, 인간, 동물, 조류, 모든 행사와 행사에 대한 원인 등을 다 만든 조물주이신 **알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런데 어떤것을

창조하는 것과 그것에 대한 원인 사이에 모순은 없다.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창조하셨고 원인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증거들이 있는데 본능적으로 조물주의 존재를 믿는 진정한 예들을 몇 가지 언급하겠다.

1- 어떤 아랍인한테 “**알라**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가 무엇이나”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 아랍인이 “밭자국이 걷는 것을 밝히는 증거인데 우주에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바다도 있고 별도 있고 태양도 있고 달도 있는데 그 모든 창조물이 조물주이신 **알라**의 존재를 밝히는 충분한 증거들이 아닌가?!” 라고 대답하였다. 그 아랍인 말은 올바른 본능적인 말인데 시력 또는 명상에 의지한다.

인간의 본능의 종류는 2 가지가 있다:-

- 가) 올바른 본능을 가지는 사람: 본능적으로 조물주의 존재를 믿고 우주에 있는 과학적 기적을 명상하면서 이 기적들이 **알라** 존재를 밝히는 증거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런데 **알라**의 기적을 알기 전 이미 본능적으로 조물주이신 **하나님** 존재를 믿고 있다.
- 나) 본능에 결함이 있는 사람: 조물주이신 **하나님** 존재를 믿지 않는데 **알라**의 기적 및 증거들을 명상하면은 **하나님** 존재를 믿을 수 있다.

코란의 성구도 본능에 이미 있는 인식을 인간한테 기억시킨다.

“그들은 스스로 창조되었느냐<sup>4</sup> 아니면 그들 스스로가 조물주이더뇨 \* 아니면 그들이 하늘과 대지를 창조하였다 하더뇨 그렇지 아니하니 그들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없을 뿐이라” {성코란 52: 35,36}

여기서는 질문 수식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 하지 않으셨으면 네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스스로 창조하게 되었느냐? 무(無)에서 존재하게 되었느냐? 제정신인 모든 사람들이 “아니다.. 불가능하다..당연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있겠다” 라고 생각할것이다.

<sup>4</sup>창조주께서 창조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창조되었다는 뜻으로 불신자들은 창조주의 존재와 창조주의 창조를 부인하려 하였다.



네가 너를 창조했느냐?  
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것이다

그러니까 조물주이신 **하나님** 존재를 본능적으로 믿는 것이다.

## 2- “말레크” 이맘<sup>5</sup>:

“말레크” 이맘에게 똑같은 질문을(조물주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밝히는 증거) 던지었는데 말레크 이맘은 언어 및 소리가 사람하고 국민하고 국가 간에 서로 다른 것은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밝히는 증거들중 하나라고 대답하였다.

## 3- “아부 하니파” 이맘:

- 몇몇의 불신자들이 “아부 하니파” 이맘에게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밝히는 증거가 무엇이나 물어보았다.
- “아부 하니파” 이맘이 “바다에 있는 아주 큰 배가 있는데 그 배의 세일러나 그 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나 보호하는 사람이 없고 그 배는 혼자서 스스로 바다에 항해하고 있는 것을 상상해보라” 고 얘기하였다.
- 불신자들이 이 얘기는 불가능하고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하였다.
- “아부 하니파” 이맘이 그럼 이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고 다스리게 하는 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는가?
- 불신자들이 그때 이슬람과 **알라**를 믿게 되었다.

## 4- “샤피이” 이맘: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밝히는 증거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샤피이” 이맘이 “닥나무의 맛은 똑같은데 벌레가 먹으면 비단이 나오고, 꿀벌이 먹으면 꿀이 나오고, 양이 먹으면 똥이 나오고, 사슴이 먹으면 사향이 나온다” 라고 하였다.

## 5- “입느 함발” 이맘:

---

<sup>5</sup>이맘:이슬람교 국의 종교적 원수 칭호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밝히는 증거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입느 함발” 이맘이 “ 튼튼하고, 부드럽고, 문도 없고 장문도  
 없는, 바깥 쪽은 은처럼 하얀, 안쪽은 금처럼 누런 요새가 있는데  
 깨지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동물이 나올것임” - 요새는  
 계란이라는 뜻이고, 동물은 닭이라는 뜻이다 -

그 위에 나와있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음.

이 파트를 코란의 성구로 마칠것이다.

“선지자들께서 말했더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관해  
 의심하느뇨” {성 코란 14:10}

“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위해 딸들을 택하시고 너희는 아들을  
 선택하도록 하였단 말이뇨” {성 코란 43:16}

“그분이 창조한 것을 그분이 모를리 있느뇨 실로 그분은  
 신비한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아시는 분이시라” {성 코란  
 67:14}

## 창조주이신 알라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는 증거들

심리적, 본능적, 관능적, 합법적 증거 등과 같이 현대과학으로 밝혔던 증거들은 **알라 하나님의 존재**를 보였으며 정신이 온전한 어떤 사람도 **알라**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입증하였다. 그 증거들 중에서 몇 가지를 간단히 언급하겠다.

### 1- 심리적 증거

인간은 우주에 있는 땅, 별, 하늘, 산, 나무, 바다, 인간, 동물 등... 명상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갖게 된다.

-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 이런것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 우주는 우연히 무에서 존재하게 되었는가?
- 이 우주를 누가 운행하고 있는가?

물론 이러한 것들이 우연히 무(無)에서 존재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말도 안되는 것이다. 영향이 있으면 그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위대한 피조물이 어떻게 무(無)에서 존재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러한 위대한 우주 및 피조물은 아주 조화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연히 운행될리가 없다.

그래서 정답은 이 우주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분이 계신다는 것이다. 그 분이 **알라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스스로 창조되었느뇨<sup>6</sup> 아니면 그들 스스로가 조물주이더뇨  
\* 아니면 그들이 하늘과 대지를 창조하였다 하더뇨 그렇지 아니하니  
그들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없을 뿐이라” {성코란 52: 35,36}

### 2- 본능적 증거

올바른 본능을 가지고 있는 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전에 나온 내용처럼 인간은 어려운 난관에 처할때

---

<sup>6</sup>창조주께서 창조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창조되었다는 뜻으로 불신자들은 창조주의 존재와 창조주의 창조를 부인하려 하였다.

그의 마음은 하늘을 향하여 주님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구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알라~~ 저를도와주세요” 라고 하곤 하였다.

“필요한자가 부를 때 이에 대답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느냐”  
{성코란 27:62}

### 3- 관능적 증거

인간의 관능 및 본성은 **알라**의 존재에 대해 믿는다. 거기에서 인간이 간청이나 간구할 때 **알라**께 간청하곤 한다. 그리고 보통 어떤 자는 특히 선지자와 사도들이 **알라**께 간구하면 **알라**께서 받아들이신다.

마지막 사도인 무함마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올바른 관습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왔다. “아나스 입느 말레크” 이맘이 전하셨다.

(금요일예배 때 무함마드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설교하면서 어떠한 남자가 들어와서 “**알라**의 사도님, 땅이 다 파괴되었으니 **알라**께 살려달라고 간구해주시오” 라고 하였다. 그래서 무함마드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자기 손을 하늘로 향하여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알라** 살려주시오” 라고 간구하였다. 그 때 하늘은 밝고 구름이 없었는데도 비가 죽죽 내렸다. 일주일동안 비가 계속 내렸다.

다음 금요일예배 때 다른 남자가 와서 무함마드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무함마드 사도님, 건물은 썩었고 돈은 파괴되었다, **하나님**께 비를 좀 멈추게 해 달라고 해주시오” 라고 요청하였다. 그래서 무함마드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자기 손을 하늘로 향하여 “**알라**, 여기서 말고 주변에 내리게 해주시오” 라고 간구하였다. 똑같은 순간에 비가 멈추었고 공기가 화창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는 관능 증거 중에 하나인데 **알라**께 간청하면 **알라**께서 받아들이신 것을 입증한다. 게다가 **알라**의 마지막 사도인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신탁의 성실 및 진심 그리고 무함마드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지혜도 입증된다. 거기에서 무함마드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신탁과 성서를 입증하는 증거들 중에 **알라**이 지원하시고 간구를 받아들이신 것이다.

### 4-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

선지자와 사도들은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무한하신 **알라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들에게 전달하였다. 기적들로 그 **분의** 존재 및 유일성 그리고 훌륭한 가능성이 입증되었다.

## 5- 과학적 증거

예전의 무신론 인간은 매일 본 태양이 매일 똑같은 상태로 보이니까 무한한 줄 안다. 그 때는 철학자들이 그 태양을 창조한 사람이 없으며, 태양이 오랫동안 존재하였고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현대 과학은** 태양에서 온 광선이 태양의 크기에 따라 줄어든다고 한다. 지금은 태양의 크기에 비교하여 보지 못하는데 언젠가 (부활의 날때) 다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입증하였다.

거기서 현대 과학은 태양이나 어떤 별도 무한한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철학자들은 원자가 무한한 물질이라 주장하였다.

하지만 물리학은 반대 주장을 입증하였다. 거기에서 원자는 일렉트론, 프로톤(양성자), 뉴트론(중성자)과 같은 다른 물질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물질도 다른 물질로 구성되는데 최근의 밝혀진 물질은 (쿼크)라는 물질이다. 하지만 이 쿼크는 무한한 물질이라 주장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이 쿼크 사이즈가 아주 작아도 다른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지 없는 지 모르고, 이 쿼크가 무한한 물질이라고 보이는 증거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대 과학은 이 물질이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고 에너지는 물질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수소(수소)라는 물질이 있고 빛이라는 에너지가 있는데 둘은 동전의 양면이다. 거기서 물리학에 따라 에너지는 크기의 곱하기, 빛 속도의 제곱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물질은 어떤 종류나 어떤 형태도 다 무한하지 않고 무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 6- 천문학적 증거

천문학은 예전에 몰랐던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밝혔다. 천문학은 우주가 지속적으로 넓어지며 은하들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떨어져

있다는 것을 밝혔다. 천문학자들이 이 이상한 현상을 해석해 보았는데 이론 2 개를 제안하였다.

가) 지속적 창조라는 이론

나) 대 폭발 이론

이 두가지 이론의 목적은 은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며 우주가 계속 넓어져도 우주의 밀도는 변함 없고 계속 똑같다는 사실을 해석하기 위해서다.

#### 가)지속적 창조라는 이론 (고정된 우주라는 이론)

이 이론은 우주가 계속 넓어져도 우주의 밀도가 변함 없다는 것을 해석하였는데 어떤 물질이 떨어지면 다른 물질이 와서 교체하니 우주 밀도는 그대로 똑같이 남는다. 그러니까 우주는 오랫동안 고정되어 있으니 우주 시작이 없고 끝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교체하는 물질이 어디서 왔을까?” 라는 의문을 던졌다. 몇몇의 사람들이 이 교체하는 물질이 무에서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정신 있는 사람은 무에서 창조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현대 과학자들은 우주가 고정된 상태로 되어 있지 않다고 밝혀 이론을 무효화 시켰다. 거기에서 우주가 지속적으로 변한다고 입증되었다.

#### 나) 대폭발이라는 이론

위에 나와있는 중요한 밝힘에 따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우주가 떨어져있고 넓었고 하면 당연히 예전에 우주의 은하들이 아주 가까웠을 것이고 우주가 아주 작았을 것이다.

지금은 은하들이 서로 떨어져 이동하니 당연히 예전에는 서로 가까이 이동하였을 것이다. 즉 예전에 이 우주가 존재하게 되기 전에 다 한 조각이었을 것이며 이 조각의 크기는 구성된 은하, 별 등과 같은 물질을 다 합쳐서 나온 크기와 똑같았을 것이다. 거기서 물리학자들은 은하들이 서로 가까워질수록 사이즈가 커지고 중량 강도도 강해지고 접착력이 강해지며 별로 구성된 은하와 같은 물질이 서로에 있는 공포탄이 없어진다. 계속적으로 중량 강도가 강해져 지압이 강해진다.

그러니까 예전을 생각하면 지속적으로 지압이 강해져 이 우주를 구성한 물질은 원자 크기로 되었을 것이고 더 지압하게 되면 원자보다 더 작게 되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지압이 많은, 위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폭발하게 하여 그의 부품들이 사방으로 방출하여 확산되었다. 이 사방이 차가워지면서 현재의 우주는 구성되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다:

이 물질은 어디서 왔을까?

무에서 왔을까?

아니지..무에서 온 게 없다.

그러면 어디서 왔을까?

정답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성코란에서도 이 대폭발에 대해 정확한 사실이 설명되어 있다.

“ 불신자들은 하늘과 땅이 하나였음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분리하고<sup>7</sup> 물을 모든 생명체의 근본으로 두셨으니 그들은 믿지 아니하려 하느뇨<sup>8</sup>” {성코란 21:30}

이 코란의 성구는 훌륭한 기적적인 증거이다.

## 7- 우주 시스템 증거

우주에 대해 생각해보면 얼마나 시스템적으로 조화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지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우주 시스템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우주가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인간을 위해서 훌륭하고 조화롭게 우주 시스템이 만들어졌을까?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우주에 대해 생각하면 이 우주와 피조물은 무작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조화롭게 만들어지고 다스리는 법도 있으며, 이 법들이 우주를 만든 **분**이 뜻이 없으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sup>7</sup>하늘과 대지는 하나로 되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이를 분리하여 하늘을 현재의 그곳으로 올려보내고 지구는 현재의 그대로 두었다는 뜻으로 모함메드 알리 알사부니 교수는 풀이하고 있다. 한편 하산과 쿠타다 학자도 같은 해석으로 하늘과 대지 사이를 공기로 분리하였다고 말하고(알꾸르뽀비 283/11), ‘이브누 압바스는 최초에는 하늘도 닫혀 있어 비가 내리지 아니했고 대지도 닫혀있어 식물이 생성치 아니 했으니 **하나님께서** 하늘과 대지를 분리하여 하늘로부터는 비를 내리게 하고 대지로부터는 식물이 생성토록 하였다고 해석하고 있다(자드 알마씨르 348/5)

<sup>8</sup>그래도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려 하느뇨



변하지 않는 것을 인식하게 되며 이 우주를 만든 훌륭한, 지혜가 있는 분이 당연히 있다고 인식할 것이다. 그 분은 하나님이다. 예를 들어 몇 가지를 간단히 언급하겠다:

가) 지구의 크기: 우리가 살고 있는 거대한 대지(땅)는 우주와 비교하면 원자 크기도 동등하지 않다. 왜 이러한 크기로 만들어졌냐고 하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 만약에 지구 크기가 달 크기와 똑같았으면 중량 강도가 현재 중량 강도와 비교하면 1/6로 동등하였을 것이다. 결국은 물이나 공기를 잡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지구는 달처럼 물도 없었을 것이고 공기도 없었을 것이며 밤에는 동결할 만큼 추웠을 것이고 아침에는 화상 당할 만큼 더웠을 것이니 지구에도 달처럼 생명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지구 크기가 현재 크기보다 컸으면 중량 강도는 더 강해졌을 것이고 생명이 없을 정도로 지압이 증가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구는 이러한 크기로 창조되었다는 이유와 지혜가 있다.

나) 지구의 속도: 지구는 1 시간당 1000 마일속도로 자기 궤도를 돌고 있다. 즉 매 24 시간에 1 회를 마친다. 당연히 이러한 속도의 이유와 지혜가 있다. 만약에 1 시간당 2000 마일 속도로 궤도를 돌면 아침과 밤의 기간이 10 번으로 길어졌을 것이며 아침에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화상 당했을 것이고 남은 것은 밤의 심한 추위로부터 다 파괴되었을 것이다.

다) 지구의 지각: 지구의 지각 두께는 현재 두께보다 10 배로 두꺼웠으면 그 지각이 모든 산소를 흡수하여 생명이 없었을 것이다.

라) 바다: 바다의 깊이가 현재 깊이보다 조금 깊었으면 산소 및 이산화탄소가 바다로 끌려들어가 식물이나 인간, 동물의 생명은 없었을 것이다.

마) 대기: 대기가 현재보다 더 얇았으면 유성은 지구에 침투하여 지구를 파괴시켰을 것이다.

바) 태양: 태양이 지구와 더 가까웠으면 지구에서 살고 있는 피조물은 화상 당했을 것이고 더 멀었으면 심한 추위 때문에 지구에 있는 생명체를 파괴시켰을 것이다.

우주에 위에 나와있는 증상과 같은 기묘한 평형 및 조화 증상이 많이 있다. 이러한 예들이 **알라 하나님**의 존재, 가능성, 지혜를 보이는 증거이다.

## 8- 도덕적 증거

정직, 정의, 봉납과 같은 도덕 특성이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든다. 이 특성이 없으면 사회 관계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인간들이 많아질수록 사회가 더 발전되고 부패가 없을 것이다.

신론 및 종교가 없으면 이러한 좋은 특성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이 있게 된 원인이나 지시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직한 사람은 **알라**의 내세가 없거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왜 계속 정직하게 살 건가?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계속 정직하게 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신론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고 잘못을 했던 인간은 내세에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좋은 사회가 있는 것이다. 이런 좋은 특성을 가진 인간이 현세 때 손해를 봐도 내세 때 보상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좋은 특성을 가지고 살면서 좋은 관계가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특성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그 분이 바로 **알라 하나님**이시다.

## 우주를 창조하고 운행하신 하나님이 두 분이나 더 계실 수 있나?

본능적으로는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분밖에 없다.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은 착각이고 본능이 옳지 않은 인간들이다. 올바른 생각 및 본능은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거기에서 보이는 증거들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신을 예배하고 따라하는 것은 환각이고 억측일 뿐이다.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알지 못함이라 그들은 억측만을 따를 뿐이라 실로 억측은 진리에 대하여 아무것도 유효하지 않노라” {성코란 53:28}

그런데 모든 정확한 증거들은 **알라** 하나님의 유일성을 보이고 하나님의 가능성 및 특성을 가지는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

### 1- 본능적 증거

가) 올바른 본능을 가지고 있는 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다. 그래서 인간은 어려운 난관에 처할때 그의 마음은 하늘을 향하여 주님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곤 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알라**~~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곤 하였다. **하나님**이라는 말밖에 안 한다. 이러한 말은 **알라** 하나님의 유일성을 보이는 증거이다.

나) 인간이 간청이나 지킴을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1 분만 간청한다.

예전에 무함마드 사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시대 때이교도와 이방인들이 많은 신과 돌로 만든 아이들과 조각상을 따라 예배하곤 하였다.

그리고 만약에 이교도한테 “몇몇 신에게 예배하느냐?” 물어보면 “신은 한 분만 하늘에 계시고대지에 계신 다른 몇몇

신에게도 예배한다” 고 대답한다. 근데 어떤 신한테 간청하냐고 물어보면 하늘에 계신 신께 간청한다고 대답한다. 이것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유일성을 보이는 증거이다.

## 2-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

선지자와 사도도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믿음을 인간들이 촉구하곤 하였다. 그리고 선지자와 사도들의 촉구 및 신탁이 인간들의 본능과 다르지 않고 반대하지 않는다. 이러한 본능을 가지는 인간을 창조하신 분과,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내신 분이 똑같은 분이기 때문이다. 그 분은 바로 **알라 하나님**이시다.

## 3- 심리적 증거

가) 심리적으로는 우주를 명상하면 얼마나 잘 만들었고 시스템과 조화가 정당한 지 인식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 훌륭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똑같은 특성과 가능성을 가지는 두 분이 계신다고 하면 그 두 분의 뜻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한분의 뜻은 어떤 것이 움직이는 것을, 반면에 다른 분의 뜻은 똑같은 것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하면 어떻게 될까?

거기서는 가능성이 3 가지가 있다.

\* 둘의 뜻이 반대로 생겼다고 하면 두 개를 결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 아니면 둘의 뜻이 생기지 않았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무조건 뜻이 생겨야 된다.

\*아니면 두 개의 뜻 중에 하나의 뜻만 생겼다고 하면 그럼 하나의 뜻이 생겼다는 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다. 근데 다른 분은 **하나님**의 가능성이 없으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다.

“ 만일 그 안에<sup>9</sup>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었다면 그 둘<sup>10</sup>은 붕괴하였으리라 옥좌의 주님이신 하나님 그리고

<sup>9</sup>천지안에

그들이 묘사하는 것 위에 높이 계신 하나님만을 찬미하라”

{성코란 21:22}

위에 있는 코란의 성구의 신론은 유일성을 뜻한다. 즉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다.

나)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알라 하나님께서 이 훌륭한 우주를 창조하시었고 그 우주에 있는 피조물을 다 창조하시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니 올바른 생각은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알라 하나님의 유일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알라 하나님만을 따라 예배하며 그 외에 조각상이나 아이들이나 우상과 같은 다른 신들을 따라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

올바른 본능과 생각은 신을 따라하여 예배하고 거룩한 신 한분밖에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 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이 훌륭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똑같은 특성과 가능성을 가지는 분이 둘이나 그 이상이 있다고 하면 인간은 그 모든 신을 따라하여 거룩해야 되고 예배해야 된다. 그런데 틀림 없이 그 신들의 뜻이나 명령은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인간이 누구를 따라하여 순종해야 되느냐? 만약에 그 신들 중에서 한 분만을 순종하면 다른 신들로부터 노여움과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나? 틀림 없이 이러한 말은 논리적으로 본능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올바른 본능을 가지고 있는 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한분밖에 없으시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비유하사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여러 주인을 섬기는 사람과 한 주인에게만 충성하는 사람이 같을 수 있느냐<sup>11</sup> 모든 찬미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나 그들 대다수는 알지 못하더라” {성코란 39:29}

<sup>10</sup>하늘과 대지

<sup>11</sup>여러 우상을 숭배하는 불신자와 하나님 한분만을 경배하고 믿는 자가 같지 아니함을 비유하고 있다.

이 코란성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신으로 숭배하는 불신자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신자가 같지 않다고 의미한다.

“ 만일 그 안에<sup>12</sup>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었다면 그 둘<sup>13</sup>은 붕괴하였으리라 옥좌의 주님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묘사하는 것 위에 높이 계신 **하나님**만을 찬미하라”  
{성코란 21:22}

이 코란성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었다면 그 신들의 뜻은 서로 다를 수 밖에 없으니 하늘과 대지는 붕괴하였을 것이라 의미한다.

결론은 본능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우주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분이 두 분이나 그 이상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알라** **하나님**밖에 없다.

- 다) “**하나님**은 지식을 두지 아니하셨으며 그분을 대적할 어떠한 신도 없노라. 만일 다른 많은 신들이 있었다면 각 신들은 자기가 창조한 것을 빼앗아 갔을 것이며 다른 신을 지배했으리라 **하나님**이여 그들이 묘사하는 것을 초월하여 홀로 영광받으소서” {성코란 23:91}

이 코란성구는 **알라**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것을 무효화시킨다. 거기에서 올바른 본능을 그대로 가지고 인간들의 올바른 생각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과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무효시켰다. 만약에 **하나님** 한 분 이상 있었다면 가능성은 두 개 있을 것이다

\*1 번째 가능성: 둘의 뜻이 생겼다고 하면 거기서는 1 번째 결과인 “각 신들은 자기가 창조한 것을 빼앗아 갔을 것이다.” 가 나올 것이다. 두 개의 뜻을 합하면 반대를 결합하는 것이며 불가능한 일이다.

<sup>12</sup>천지안에

<sup>13</sup>하늘과 대지

\* 2번째 가능성: 두 개의 뜻 중에 하나의 뜻만 생겼다고 하면 그럼 2번째 결과인 “다른 신을 지배했으리라.” 가 나올 것이다. 하나의 뜻이 생겼다는 것은 바로 진짜 **하나님**이다. 근데 다른 분은 **하나님**의 가능성이 없으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으시다. **알라** **하나님**밖에 신은 없으며 다른 파트너도 없고 같이 숭배되는 신도 없고 지식이나 아들도 없다.

“성자와 성부도 두지 않으셨으며” {성코란 112:3}

이 코란의 성구에서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확인한다. 거기서는 유대인들은 오자이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고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며 불신자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딸들이라 묘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정으로써 본질이 계시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 이 모든 신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당연히 가능성이 더 강한 다른 신이 창조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이 신도 누가 창조하였을까?

당연히 가능성이 더 강한 다른 신이 창조하였을 것이다.

이에 따라 계속 이러한 질문을 던졌으면 결론은 당연히 창조의 가능성이 제일 강한 신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어떠한 신이 다른 신을 창조하였다는 말은 본능이나 인간의 올바른 정신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 우주의 창조주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유일하시고 무한하시고 죽지 않으시고 성자와 성부를 두지 않으셨던 분이시다.

결론은 이 파트의 질문인 “우주를 창조하고 운행하신 **하나님**이 두 분이나 더 계실 수 있나?” 의 정답은 아니다, 우주 창조주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알라 하나님에 대해 믿으면 하나님을 뵈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못 뵈면 하나님께서 없으시다는 것이냐?

모든 증거(본능적, 관능적, 논리적, 심리적, 과학적, ...)로 **하나님**의 존재와 유일성이 입증되었는데 이 파트의 의문도 대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거도 추가하여 언급한다.

- 중력의 법칙은 어떻게 생기는 지 전혀 못 보는 것이다. 처음으로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을 때 인간들은 지금까지 받아드린다. 실제적으로 못 보는데 중력의 영향이 있으니 믿게 되었고 지금은 중력의 법칙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불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무효인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의 영향은 다 인식할 수 있는데 중력의 법칙의 영향하고 **하나님** 존재의 영향은 비교해서 간주되며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느냐? **하나님**께서 중력의 법칙도 창조하신 분이데 인간은 중력을 못 보면서 어떻게 중력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이에 따라 진리는 봐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생각이다. 이 영향만 보면 진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몇 가지 예를 언급하겠다:-

### 1- 우유 및 버터

모든 인간들은 어른이든 어린이든 무식한 자든 유식한 자든 다 버터는 우유에서 나온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면 우리는 우유를 젓을 짤 때 버터를 볼 수 있나? 당연히 아니다. 우유는 여러 단계를 지나서 버터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버터를 못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 2- 뇌 및 생각

**하나님**께서는 뇌를 창조하여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간들은 그 뇌로 생각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명상할 수 있다. 누구나 뇌나 생각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 불신자나 무신론자에게 뇌나 생각을 볼 수 있다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한다.

그래서 뇌나 생각을 보아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이 있어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불신자나 무신론자들은 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느냐? 이러한 생각은 자기자신의 모순인 것이며 억측과 환각을 따라가는 것이다.

### 3- 영혼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하여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시 영혼을 잡을 때까지 우리가 살 수 있다. 누구나 영혼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불신자나 무신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문을 던지었다:

- 자기 안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 “당연히 있다” 고 대답한다.

- 그러면 이 영혼을 보았느냐?

- “당연히 아니다” 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영혼을 안 보아서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냐?

- “아니다” 라고 대답한다.

그래서 영혼을 보아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이 있어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불신자나 무신론자들은 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느냐? 이러한 생각도 자기자신의 모순인 것이며 억측과 환각을 따라가는 것이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그 중력의 법칙, 우유, 버터, 뇌, 생각, 영혼, ... 등을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보아야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이 있으니 인정해야 된다.

## 이슬람에서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특징

모든 증거로 **하나님**의 존재와 유일성이 입증되었으며 올바른 본능을 가지고 있는 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다. 그래서 인간은 어려운 난관에 처할 때 그의 마음은 하늘을 향하여 주님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곤 한다. **하나님**이라는 말밖에 안 한다. 이러한 말은 **알라** **하나님**의 유일성을 보이는 증거이다. **알라** **하나님**의 유일성을 인정했으면 **알라** **하나님**만 따라하여 예배하고 숭배해야 되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따라하여 예배하면 안된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특성의 설명을 한 서문으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은 본능적으로 조물주의 존재를 믿으려는 본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물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거룩하고 고귀하며 위대하다는 것을 확신하려는 본성을 갖고 있다. **알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뇌도 주셨으므로 우리는 잘 명상할 수 있고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다. **알라** **하나님**의 위대한 특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분은 영원한분이며, 무한하고강하신분이며,  
자비롭고자애로운분이요, 창조주이며, 부양자이시다. 그분과 대등한 것도 없고 인간들과 다르게 다른 특성을 갖고 계신다.

“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며 너희를 위해 자웅을 두사  
가축에도 자웅을 두었노라. 이로 하여 너희를 번시케 하니  
그분에 유할 것 아무 것도 없도다. 실로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지켜보고 계시니라” {성코란 42:11}

**알라** **하나님**께서 처음이며, 그분 전에 아무것도 없었고 완벽하며  
특성 및 이름도 무한하고 영원하며, 그분께서 없었던 새로운  
특성을 갖지 않으시고 이미 있는 특성을 잃지 않으신다.

“일러가로되 **하나님**은 단 한분이시고 \*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  
성자와 성부도 두지 않으셨으며 \* 그분과 대등한 것 세상에  
없노라”

{성코란 112}

이 코란의 성구의 주해는 다음과 같다:-

- 1- 일부 불신자들이 선지자에게 와서 말하길, “무함마드여!  
그대 주님께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요. 그대 주님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은, 아니면 자비르자다(귀  
감리석), 아니면 루비로 되어 있습니까?” 말했을 때, “일러  
가로되...” 라고 계시되었다고 풀이되고 있다. 불신자들이  
믿는 우상도 아니며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삼위일체(성부=성자=성신)의 신도 아닌 오직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다.
- 2- 모든 일에 있어서 인간이 귀착하는 곳은 곧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뿐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 3- 유대인들은 아지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고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며 불신자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딸들이라 묘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정으로써 본질이 계시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4- 이클라쓰장을 읽는 자는 코란 전체의 1/3을 읽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다쓰는 전하고 있다. 코란의 내용을 크게  
세가지로 분류한다면 유일신 사상과 규범 및 이야기로 볼 수  
있는데 바로 이클라쓰장은 유일신 사상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장을 읽을 때의 보상도 코란 전체의  
1/3을 읽었을 때의 보상과 다름이 없다고 전해 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송성중에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신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 밖에 없으며, **하나님**은  
완전하고 영원히 존재하시고 인간이 귀착할 때 **하나님**께  
귀착하고 **하나님**의 자손은 없고 딸도 없다. 특히 본 장은  
**하나님**의 유일신론을 총괄하고 있어 짧은 장이면서도 코란 전  
내용의 삼분의 일에 해당하리만큼 가장 많은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 장이라 풀이되고 있다.

**하나님**의 다른 특성 중에 몇 가지를 언급하겠다.

### 1- 창조주의

알라 하나님께서 우주와 거기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존재하게 만드셨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 2- 영원하고 무한함

알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존재하셨고 영원히 존재하실 것이고 모든 창조물을 없앤 다음에 알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재하실 것이며 그 분께서 다른 분은 필요 없고 창조물들은 그 분(하나님)이 계속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을 던졌다. 어떻게 알라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님께서 혼자 무한한 특성이 있는데 숭배하는 창조물이 영원한 천당에서 살 수 있나?

답은: 하나님의 특성은 계속 있을 것이고 변함이 없을 것이며 천당은 하나님의 뜻으로 계속 있는 것이다. 천당에 변함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으로 생긴 것이다. 천당도 창조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 3- 지식

알라 하나님께서 우주에 생긴 모든 일에 대해 알고 계시고 지식을 갖고 계시며 대지나 하늘에 생긴 모든 일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다. 어떤 일이 생기기 전 미리 알고 계시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알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것도 알고 계신다.

### 4- 능력 (전능)

알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가능성 및 능력이 있다. 그 분께서 이 우주를 다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 그 분의 능력은 전능이라고 묘사되며 이 우주에 그 분께서 못 하시는 것이 없고 이 전능을 가지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 5- 왕국

알라 하나님께서 모든 왕국을 소유하시고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시며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도 알고 계신다.  
그 분께서 마음대로 명령할 수 있고 금기할 수 있다.

#### 6- 정상

알라 하나님께서 제일 위대한 창조물 중인 권좌를 창조하셨고  
그 권좌로 오르셨다. 알라 하나님께서 권좌의 주님으로  
묘사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좌로 오르셨다는 뜻은 하나님의 주권 및  
위엄과 어울리는 특별한 권좌에 가로놓으셨다는 의미한다.

##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완벽함, 지혜, 위대한 특징을 보이는 증거들

알라 하나님께서 코란에서 말씀하셨다.

“실로 그분께서 무엇에 뜻을 두시고 있어라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성코란 36:82}

즉 알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뜻이 있으면 한번만 명령하시어, 다시 명령 안 하시어 그대로 되는 것이다. 그 분께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모든 뜻이나 명령이 그 분께 돌아가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완벽함, 지혜, 위대한 특징을 보이는 증거들이 대지, 하늘, 우주에 있는 별, 행성, 은하 등과 같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우주 시스템의 이상적인균형과 훌륭한 조화도 알라 하나님의 전능을 보이는 증거들이다.

그리고 알라 하나님의 전능을 보이는 위대한 증거들 중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며 셀 수 없는 위대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밝혔던 것도 우주에 있는 조화 및 균형과 생물체도 얼마나 그런 것을 창조하신 분이 전능을 갖고 계시는 지 보였다. 다른 증거도 있다:-

### 1- 올바른 본능 및 옳은 생각:

올바른 본능을 가지고 있는 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전능과 위대한 특성을 갖고 계신다고 믿는다.

그래서 인간은 재난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곤 한다. 인간은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난관에 처하기도 한다.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인간은 비록 그가 줄곧 창조주를 부정하고 우상을 숭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하늘을 향하여 주님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구한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올바른 본능을 갖고 있는 자는 알라 하나님의 위대한 전능 및 특성을 거부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인간은 자기 몸을 어떻게 창조되었는 지 명상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을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간 창조는 커녕 우주에 있는 대지, 하늘, 별, 은하,

바다 등과 같은 위대한 창조물의 창조를 명상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분이 갖고 있지 않은 전능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 2- 선지자와 사도의 말씀

선지자와 사도들은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무한하신 **알라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들에게 전달하였다. 기적들로 그 **분**의 존재 및 유일성 그리고 훌륭한 가능성, 전능, 특성이 입증되었다. 그 기적들 중에서 무함마드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기적 하나를 언급하겠다.

- 무함마드 사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달 분할되는 것이다. 이 기적은 다음의 내용에 자세히 나온다.

## 3- 알라 하나님의 영원함 및 무한함

사전에 나온 내용처럼 본능적, 과학적, 심리적 증거로 **알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존재하셨고 영원히 존재하실 것이고 모든 창조물을 없앤 다음에도 **알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실 것이며 그 분께서는 다른 분은 필요 없고 창조물들이 그 **분(하나님)**이 계속 필요하다.

인간은 자기에 대해 명상하면 자기는 부모 때문에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 부모의 다른 조부모 때문에 창조되었고 등등을 인식할 것이며 첫 번째 부모를 창조하셨던 분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그 분이 바로 **알라 하나님**이시다.

마찬가지로 모든 창조물이 창조되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를 창조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알라 하나님**의 전능을 보이는 과학적 증거들 중에 물이 있다. 과학적으로 물은 수소 분자 2 개 및 산소 분자 1 개로 구성된다.

이상한 것은 수소는 불에 타는 연소 가스이며 산소는 불 타는 것을 촉진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가스는 불 끄는 물을 구성한다. 이것은 **알라 하나님**의 위대한 전능 및 특성을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이다.

## 4- 알라께서 영혼을 창조하심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하여 인간에게 주셨고 다시 영혼을 잡을 때까지 인간은 살 수 있다. 누구나 영혼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모든 생물은 **알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혼으로 인해 죽을 때까지 현세에 살 수 있는데 죽어서 내세에 **알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생물체에게 다시 돌려주신다.

그 내세 때 심판을 받은 다음에 천당 또는 지옥에서 살 것인지 결정된다. “**하나님** 외에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하나님**의 사도이다” 라고 믿지 않은 채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은 묘에서 부활될 때까지 고문을 받을 것이고 영원히 천당에 들어가지 못하며 지옥 불에 던져질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와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 대해 믿으며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금기하셨던 것을 하지 않은 인간은 부활될 때 바로 영원한 천당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알라 하나님**의 전능을 보이는 증거 중에 창조하셨던 영혼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생물체가 사는 이유가 되었는지는 지금까지도 과학에 의해 밝혀지지 않았다.

##### 5- 진정한 신자들은 알라 하나님의 명령 대로 하는 것임

**알라**께서는 인류에게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완벽한 속성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천당에 이를 수 있고 어떻게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예언자, 선지자, 사도들을 보내셨다. 그 분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내셨을 때 그들을 지원하시게끔 기적들과 같이 보내셨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진정한 신자들이 **알라 하나님**의 명령을 선지자와 사도들로 인해 알게 되어서 **알라 하나님**을 숭배하고 그리고 **알라 하나님**께서 금기하신 것이 있으면 하지 않는다. **알라 하나님**께서 인간이나 천사나 고블린을 창조하셨을 때 **알라 하나님**에 대해 믿는 것이나 숭배하는 것에 강요하지 않았고 인간이 알아서 **알라**를 숭배하거나 거역하는 것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도 진정한 신자들은 **알라 하나님**을 숭배할 때 최선 다 한다.

예를 들어 천사들이 **알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숭배하는 것밖에 안 한다.

게다가 **알라 하나님**의 전능을 보이기 위해 의문을 던진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우주와 그에 있는 창조물을 알 사이즈 로 만드실 수 있는냐? 할 가능성이 있나?**

답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알라 하나님**께서 무엇에 뜻이 있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알라 하나님**의 전능을 보여주는 과학적인 증거 두 가지를 언급하였다-

#### 가) **염색체(고로무숨)**

인간 신체는 수 천억 세포를 포함하며 그 몇몇의 세포는 아주 작는데 그것 하나의 직경이 (0.03)mm 도 안된다.

살아있는 세포는 아주 복잡하고 정확하게 인간이 상상도 못 할 정도로 잘 창조되었다.

적혈구와 같이 세포 몇 가지를 제외하면 세포안에는 중앙에 몸이 있는데 세포 핵이라고 부른다. 인간이 뇌 기능과 같은 그 세포 핵은 세포의 뇌이며 세포를 운행하고 유전 형질을 다 갖고 있는데 특히 염색체 몇 가지에 있다. 그 염색체는 입자가 굵은 설탕, 산소 및 인산과 질소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쌍들은 질소 기초 4 개로 연결되어 있다. 그 질소 기초는 (아데난, 구아닌, 싸이투진, 티민)이다.

그리고 세포 핵에 있는 염색체는 46 개이며 23 쌍으로 되어 있는데 반은 남성의 정자이고 반은 여성의 난자이다. 그것은 남자의 정자 및 여자의 난자가 결합하여 염색체가 46 개 되는 것이다.

그 염색체는 소용돌이 꼴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두께는 오천만 분의 1 mm(1/50,000,000 mm)이고 직경은 백만분의 1 mm(1/1,000,000 mm)이고 크기는 그대로 소용돌이 꼴로 되어 있으며 백만분의 1mm(1/1,000,000 mm)인데 확산되면 길이는 4 cm 가 된다.

그래서 인간 신체에 있는 모든 세포의 염색체가 다 확산되면 길이는 대지와 태양 사이의 거리(약 150,000,000

KM)의 배 이상이 된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전능을 보이는 증거이다.

## 나) 원자의 세상

어떤 것을 수백만으로 성장시키는 원자는 망원경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작다.

원자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구성된다:-

### 1- 핵:

원자의 핵인데 한 원자의 핵은 양전하를 띤 양성자 및 중성자 중성자를 포함된다.

### 2- 전자:

음전하를 띤고 서로 연결되지 않으며 서로에 거리가 있다.

그 전자들은 원자의 핵 주위에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데 전자 크기는 1/1,000,000,000 도 안되며 1 초에 수십억으로 회전한다.

이 증거도 **알라 하나님**의 전능을 보인다.

인간의 생각은 제한되어 있어 위에 나와있는 내용을 상상도 못하는데 과학적으로 이 내용이 밝혀졌고 사실이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알라 하나님**의 전능 및 완벽함, 지혜, 위대한 특징이 입증된다.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왕국을 소유하고<sup>14</sup> 계시는 하나님께 축복이 있으소서  
실로 그 분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심이라” {성코란  
67:1}

---

<sup>14</sup>그 분의 뜻에 따라 강하게 하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허약하게 하시며, 생명을 주사 앗아  
가시며 풍성케 하사 가난케 하며, 베풀어 주시고 금기하는 뜻이라고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

## 선지자와 사도들에 대한 신앙심

알라께서는 인류에게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완벽한 속성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천당에 이를 수 있고 어떻게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지를 가르치기 위해 예언자, 선지자, 사도들을 보내셨다.

단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음: **하나님께서** 미래에 인간들이 무엇을 할 건지 미리 알고 계시고 누가 **알라**에 대해 믿을 것이고 누가 부인할 것을 미리 알고 계신다는 것이 입증되었어도 왜 인간에게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내셨나? 왜 바로 천당이나 지옥으로 안 보내셨나?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은** : 누구나 **알라**께 자기는 부당하다고 이야기 할 자격을 없애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보이는 증거들:**

1- 본능적으로 올바른 인간이 반드시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을 창조하고 그에게 축복 및 올바른 본능을 쏟아주시고 그에게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와 똑같은 인간으로 인간 세계에 보내주신 주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내주지 않으시면 인간은 어떻게 **알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선지자와 사도들은 인간을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업무를 한다. 천사가 **알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도들에게 전달해주고 이 사도들이 인간에게 **그분**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2- **선지자와 사도들의 기적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사도들을 보내실 때 계시하는 성서의 진정함을 입증하는 기적으로 지원해주신다.

앞선에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기적들에 대하여 좀 언급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와 사도를 보냈는데 각 선지자가 어떠한 민족에게 보내지게 되면 그 민족은 자기 선지자나 사도를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사도에 대해 믿게 되었으면 그 사도의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모세” 사도나 “야수으” 사도를 올바르게 따라하면 무함마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믿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토라나 복음 등과 같은 모든 종교세는 무함마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가져온 성서인 이슬람을 믿는 것을 촉구하기 때문이다. 모든 종교세에서는 이슬람이 마지막 성서이라는 것이 언급되어있다.

## 성서 및 종교세에 대한 신앙심

알라께서 인류에게 선지자와 사도들을 복음의 전달자와 경고자로서 보내셨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 성서들은 인류를 위한 안내서이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이다.

이슬람과 알라의 존재에 대해 믿는 신자들은 선지자와 사도들을 믿었으니 그분들이 가져오셨던 성서 및 종교세에 대해 믿어야 된다.

“인류는 하나의 공동체였으며 이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복음의 전달자로서 경고자로서 그 곳에 보내셨도다<sup>15</sup> 또한 그들과 함께 진리의 성서를 보내어 이로 하여금 그들이 달리하는 사람들을 다스리도록하였더라 그리하매 그 성서의 백성들은 분명한 애증이 있는 후 그들 사이에 아무 이견이 없었으나 불신자들의 증오는 그렇지 아니했더라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그들이 달리했던것에 대하여 진리로 믿는 자들을 인도하였나니 하나님은 그분의 뜻으로 옳은 길을 가고자 하는 자를 인도하심이라” {성코란 2:213}

그리고 올바른 인간은 “토라”, “복음”, “모세 신문”, “성코란” 등과 같은 모든 성서 종교세 존재에 대해 믿어야 되고 부인하지 않아야 된다. 이 성서들 중 마지막 성서인 성코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계시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코란을 어떤 별질이나 왜곡되지 않게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성코란이 마지막 성서이라는 것에 대해 믿어야 된다.

---

<sup>15</sup>믿음이 진실한 신앙인들에게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불신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지옥이 있음을 경고하기 위해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 천사들에 대한 신앙심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와 사도들에 대한 신앙을 가졌으니 그 선지자와 사도들에 대해 믿어야 되고 종교세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선지자와 사도 및 종교세가 지시하는 것들 중에 천사가 있다. 그래서 이슬람에 믿는 신자들은 천사의 존재를 믿으며 그들은 명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을 믿는다. 천사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숭배하며 그 **분**께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행동한다. 천사 중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알라**께서 보내셔서 영감, 성서를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전달해주고 코란도 무함마드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 가져다주었다. 천사들은 인간이 없는 동력과 기능 및 능력을 가진다.

## 운명(알-파다르)에 대한 신앙심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와 사도들에 대한 신앙을** 가졌으니 그 선지자와 사도들에 대해 믿어야 된다. **알라의 마지막 사도이신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운명(알-파다르) 즉 신의 예정설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셨다.**

“하늘과 대지는 그분께 있으며 그분은 자손을 두지도 않고 그분에 대등한 주권의 동반자도 두지 안했노라 모든 것을 창조하사 사물의 정립하심도 그분이시라”<sup>16</sup> {성 코란 25:2}

신의 예정설을 믿는다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슬람을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믿는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 분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어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서는 일어난 모든 것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기록해 두셨다. 그 분의 뜻이 있다면 어떤 일이나 일어날 수 있으며 그 분이 뜻이 없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

<sup>16</sup>본절은 다음 4 가지의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대지와 그 사이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둘째는 그분만이 영원히 경배받을 권능을 가진 분이며

셋째는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으며

넷째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 심판의 날에 대한 신앙심

심판의 날에 대한 신앙심은 부활에 대해 믿는다는 뜻이다. 인간이 알아야 될 것은 심판의 날 전에 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이다.

거기서 사람이 죽어서 자기 묘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며 자기의 믿음과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심판의 날(부활의 날)이 오면 전 우주가 파괴되고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이다. 그 날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삶의 연속이다.

“**하나님** 외에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하나님**의 사도이다” 라고 믿지 않은 채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은 묘에서 부활될 때까지 고문을 받을 것이고 영원히 천당에 들어가지 못하며 지옥 불에 던져질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와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 대해 믿으며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금기하셨던 것을 하지 않는 인간은 묘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고 부활될 때 바로 영원한 천당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하나님**의 사도이다” 라고 믿으면서 생명을 마치고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아셔서 심판을 하는데 조금 고문한 다음에 영원한 천당에 들어가거나 고문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심판의 날에 대한 증거들:

### 1- 옳은 본능 및 좋은 생각

**하나님**께서는 현세를 창조하셨는데 개인에게 현세의 삶은 사후 세계(내세)를 위한 하나의 시험일 뿐이다. 그 현세의 삶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몇몇의 것을 명령하시고 금기도 하신다. 올바른 길에 따라가고 명령대로 복종하면 영원한 천당으로 가는 반면에 **알라**를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내릴 것이고 징벌을 받을 것이다.

옳은 본능 및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복종하는 인간과 거역하는 인간이 똑같은 판단이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좋은 사람은 나쁜 사람하고 똑같은 보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세 때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보다 더 좋은 삶

보내도 그 현세의 삶은 아주 짧은 기간인데 내세 때 좋은 사람이 자기 자격을 다시 찾을 수 있고 나쁜 사람은 영원히 고통스러운 삶을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을 지상에서 해악을 저지른 자들처럼 대우한다 말이뇨 하나님이 사악함을 멀리하는 자와 사악한 자를 동일하게 다룰 수 있겠느냐<sup>17</sup>” {성코란 38:28}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을 죄인의 백성들처럼 대우하려 하시겠느냐 \* 도대체 너희가 그런 판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뇨” {성코란 68: 35,36}

옳은 본능 및 좋은 생각을 가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사이가 동등하면 말도 안되는 일이다.

반면에 내세의 존재는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다. 내세가 없으며 심판을 받기 위해 다시 부활하지 않으면 선량한 풍속을 가진 인간이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정직한 사람은 내세가 없으며 심판을 안 받으면 왜 계속 정직하게 살 것인가?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내세의 존재는 사실은 부패 없는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준다.

## 2- 선지자와 사도들이 부활과 심판에 대해 알려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와 사도들도 심판의 날에 대해 알려주었다. 사도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내세와 현세를 비교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세의 가치와 비교해 본 현세의 가치는 여러분 손가락을 바닷물 속에 담갔다 꺼낸 후 손가락에 남아있는 것과 같다} 사히흐 무슬림이 전하였다. 즉 내세의 가치와 현세의 가치는 바다의 가치와 몇 방울의 물의 가치에 비교된다.

## 3- 알라하나님의 지혜 및 평등에 따라:

---

<sup>17</sup>하나님의 율법과 심판에서는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와, 죄익을 낳은 죄인들, 진실을 말하는 자와 허위를 일삼는자, 정직한 자와 부정을 일삼는자, 정직한 자와 부정을 일삼는자가 심판과 보상에서 절대로 같지 아니함을 제시하고 있다.

알라 하나님의 지혜 및 평등에 따라 내세의 심판을 만드셨다. 내세의 심판이 없으면 현세에 불공평한 사악한 인간이 착하고 선한 인간의 자격을 훔쳐버리고 처벌을 받지 않고 죽고 그 착한 인간이 자기 자격을 다시 못찾고 죽으면 억울하고 불평등하다. 내세 때 그 사악한 자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고 착한 자는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래야 평등이 달성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장난으로<sup>18</sup> 창조하였다 생각하였느뇨 실로 너희는 그분에게로 돌아가니라” {성코란 23:115}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을 지상에서 해악을 저지른 자들처럼 대우한단 말이뇨 하나님이 사악함을 멀리하는 자와 사악한 자를 동일하게 다룰 수 있겠느뇨<sup>19</sup>” {성코란 38:28}

“아무 목적없이 방황토록 내 버려 두리라 인간은 생각하느뇨<sup>20</sup>” {성코란 75:36}

인간이 죽어서 다시 부활하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이는 증거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가진 생각은 틀린 생각이다.

“그들은 알지 못함이라 그들은 억측만을 따를 뿐이라 실로 억측은 진리에 대하여 아무것도 유효하지 않노라” {성코란 53:28}

#### 1- 인간 탄생 배경:

알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점토로 만드셨으며 창조의 단계 하나 하나씩 진화시키셨다. 창조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죽어서 분해된 다음에 물론 다시 부활시킬

<sup>18</sup>아무 목적없이 무의미 하게 인간을 창조하였다고 생각하며 또한 동물처럼 너희에게도 나의 별이 없으리라 생각하였느뇨?

<sup>19</sup>하나님의 율법과 심판에서는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와, 죄익을 낳은 죄인들. 진실을 말하는 자와 허위를 일삼는자, 정직한 자와 부정을 일삼는자, 정직한 자와 부정을 일삼는자가 심판과 보상에서 절대로 같지 아니함을 제시하고 있다.

<sup>20</sup>부활과 심판과 보상이 없을 것이라 불신자들은 생각하느뇨

능력이 있을 것이다. 과학 적으로도 이것이 입증되었다.

거기에서 최초의 과학 조사는 죽는 사람의 인체를 묘에서 물과 점토로 분해된 다음에 분해되지 않은 겨자씨만큼 작은

“꼬리뼈”가 남는다고 밝혔다. 이 과학적 발견에 대해 제일 먼저 알려주었던 사람이 무함마드 사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였다. 무함마드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말씀하셨다.

**“흙은 꼬리뼈를 제외하고 모든 인간을 먹을 것이다. 꼬리뼈에서 창조되었고 그것만 남을 것이다”**

이 말씀은 무함마드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알라** 하나님의 마지막 사도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 2- 수면과 각성

인간이 자는 것은 임시된 죽음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일어나면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 한다. 그래서 인간은 매일 죽고 다시 부활되어서 이것은 내세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될 것을 보이는 증거이다.

## 3- 토양 죽음 이후에 다시 살리기 위함

**알라** 하나님께서는 식물이 못 나오는 토양에 물을 비로 내려시어 다시 살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인간도 죽음 후에 부활시킬 수 있으시다.

## 4- 나무에서 화재가 나게 시킴, 즉 어떤 것을 반대에서 나오게 시킨 것임

나무의 특성 중에 수분 및 추위가 있는 반면에 화재 특성 중에는 뜨거움 및 마름이 있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마른 뜨거운 화재를 습기있는 차가운 녹은 나무에서 나오게 시킬 수 있으시다.

옛날에 불을 피우고 싶을 때 트리거가 없으면 히자즈에 있는 “마르크” 나 “오파르” 나무에서 두 가지를 준비해 마찰하면 불이

났다. 마찬가지로 생명을 생명의 반대인 죽음에서 나오게 할 수 있으시다.

#### 5- 다른 거대한 창조물

**알라 하나님**께서는 인간만 창조하시지 않고 거대한 하늘과 땅, 바다, 태양, ...등을 창조하셨다. 이러한 거대한 창조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간단한 인간을 죽어서 다시 부활시키지 못 하실까?!!

\* 묘에서 심판:-

부활의날 전에 먼저 묘에서 자기의 믿음과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금기하셨던 것을 하지 않은 자는 묘에서 축복을 받을 것인 반면에 **알라**를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내릴 것이고 고문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묘의 심판을 못 보니 이런 심판을 부인하며 만약에 두 사람 중 한 명은 선한 사람인데 다른 한명은 나쁘고 사악한 사람이 같이 묻힐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심판이 있는 지 궁금하면서 부인한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만약에 두 사람이 똑같은 침대에서 잤는데 하나는 나쁜 꿈을 꿴 반면에 다른 한명은 좋은 꿈을 꿴다. 우리가 그 두 사람을 보면 어떤 꿈을 꿴는지 알 수 있을까?!..아니지..~

그러니까 우리는 묘의 심판에 대해 믿어야 된다.

## 올바른 지침은 어디에 있을까?

인간들은 살면서 올바른 지침을 잘 찾아야 된다. 종교계 성서인 유대, 기독교, 이슬람교에 대해 다 믿어야 되는데 이슬람교를 따라야 된다. 모든 종교계 성서는 이슬람이 마지막 성서이며 따라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 알라의 마지막 사도인 무함마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신탁

알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기에 사람들에게 올바른 지침을 가르칠 필요가 있을 때 선지자나 사도를 보내곤 하셨다. 그 선지자와 사도들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링크라는 업무를 한다. 사람들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사도인 무함마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보내게 되었다.

“예언자여 우리가 그대를 보내매 증인으로서<sup>21</sup> 복음의 전달자로서<sup>22</sup> 그리고 경고자로서<sup>23</sup> 보냄이라\* 하나님이 허락에 따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교자로서 불을 비추는 등불로서 보냄이라” {성코란 33:45,46}

“ 그들은 예언자이며 무학자 선지자를<sup>24</sup> 따르는 이들이라 그들은 그들의 기록서인 구약과 신약에서 그를<sup>25</sup> 발견하리라 그분은 그들에게 옳은 것을 명령하였고 그릇된 것을 금기하였으며 또 그들에게 성결한 것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무거운 짐과 그들의 멍에들을 벗겨 주시니 그분을 믿고 그분을 존경하며 그분을 도와 그분에게 계시된 빛을 따르는 이들은 번성하리라” {성코란 7:157}

<sup>21</sup>모든 공동체에 대한 증인

<sup>22</sup>신앙인들에게 천국의 소식을 전하고 복음의 전달자로서,

<sup>23</sup>불신자들에게는 불지옥이 있다는 경고자로서

<sup>24</sup> “움미” 는 글을 읽거나 쓸 수 없는 문맹을 일컫는다. 특히 이절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최후 선지자가 온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 계시된 것으로 신명기 18 장 15 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모세와 같이 율법을 계시 받은 유일한 선지자는 모함메드이었으며 그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삭의 형제 이스마엘의 가문에서 왔다. 마찬가지로 신약 요한복음 14 장 16 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선지자를 백성들에게 약속하였다.

<sup>25</sup>모함메드

“하나님은 너희들 중 한 사람을 한 선지자로 보내어 너희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암송하고 너희들을 성결케하며 율법과 지혜를  
가르치니 너희가 모르는 것을 일깨워 주도다\*너희가 나를  
염원하매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니 내게 감사하고 거역하지  
말라” {성코란 2: 151,152}



## 알라 하나님의 마지막 사도인 “무함마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신탁을 보여주는 증인

### 첫째: 무함마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교리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누구이냐?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570년 메카에서 태어났다. 그분의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조차 얼마 후 세상을 떠났다. 그분은 존경받는 꾸레이쉬 부족 출신의 삼촌에게서 양육된다. 그분은 글을 읽거나 배우지 못했으며 세상을 마치기 전까지 그랬다. 그분은 선지자직을 임명받기 전 그 부족 사람들은 과학을 알지 못하였고 거의 대부분이 글을 읽고 쓸 줄 몰랐다. 그분은 성장하면서 진실하고 신뢰 깊고 사람들은 그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불렸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매우 신앙심이 깊어 그 당시 사회의 우상 숭배와 타락을 오랫동안 혐오하였다.

-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계시하신 “이슬람”이라는 교리는 인간들에게 신론 유일성을 권유하시며 창조하신 생명을 주신 **알라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시고 그 분께만 예배하라고 권유하시고 **알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부정시킨다.

그리고 **알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불신자들에게 우주의 창조주이신 **알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에 대해 믿으라고 권유한다.

- 유용치 않고 손해보지 않는 다른 석상이나 우상을 예배하는 자들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것을 촉구하셨는데 아랍인 중에 **알라 하나님**외에 우상을 예배하는 사람도 있었다.

- **알라 하나님**외에 예배하는 자들을 방지하는 것을 촉구하셨는데 아랍인들이 돌을 예배하였고 페르시아인들이 불을 예배하였고 유대인들이 자기 성인들을 신으로 간주하였고 예배하였다. 기독교인들도 인간인 (예수)를 예배하였다. 예수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후 이 세상을 작은 생물로 왔고 먹고 자고 싸고 ...등과 같은 인간들이 하는 행위를 하였다. 어떻게 우리와 같은 인간을 신으로 간주하고 예배를 하는 것인가?!

기독교인들 중에는 예수가 **알라**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있다는 것은 착각이고 환각이다. **알라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왜 다른 아들은 없을까? 그 다른 아들은 왜 신으로 간주하여 예배를 하지 않을까?

예수 전에 다른 **알라 하나님**의 아들도 태어날 수도 있는데...? 이 말들이 다 환각이다. 이런 말은 맞다고 생각하게 되면 신론 유일성을 부인하는 뜻이고 이 말이 환각이라는 것은 사전에 나와있는 내용에서 입증되었다.

그래서 **알라 하나님**외에 **알라 하나님**의 특성을 가진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 그래서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권유하는 교리는 모든 올바른 생각 및 본능을 받아드린다. 거기에서 이슬람 교리는 너무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으며 이해하기가 쉽다.

## 둘째: 하람 성원 - 카으바

카으바를 깨끗이시키는 것이다.

카으바는 메카에 위치한 하람 성원에 있는데 검은 건축물이며 카으바는 경배의 장소일 뿐 그 자체가 경배의 대상은 아니다. 바로 모든 무슬림들이 예배를 드리는 방향을 정한다. 카으바는 선지자 이브라힘과 그의 아들 이쉬마엘이 **하나님**의 명으로 지은 숭배 장소이다.

카으바는 무슬림들에게 가장 신성한 곳이다. 카으바의 건물은 원래 아담에 의해 건립된 제단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브라힘에게 모든 인류가 이 곳을 방문하도록 명령하셨다. 이브라힘과 이쉬마엘은 지상 최초의 **하나님**의 성전 곧 메카의 카으바를 최초로 순례하였다고 한다.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최초의 집이<sup>26</sup> 인류를 위하여 세워졌나니 이는 축복 받는 박카에<sup>27</sup> 있으며 이는 모든 피조물을 위한 길이라” {성코란 3:96}

“**하나님**이 이브라힘을 신전으로 인도하면서 어느 무엇도 내게 불신하지 말며 순례하는 자와 기도하는 자와 허리 구부려 예배하는 자를 위해 나의 집을 신성케했노라” {성코란 22:26}

아랍인들이 매년 한번 메카로 찾아 성지순례를 하곤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마귀 때문에 **알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이 집이 얼마나 위대한 지 인식하기 위해 먼저 이 집이 **알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 하람 성원을 파괴하고 싶었던 “코끼리의 소유자”에 대해 간단히 언급할 것이다.

---

<sup>26</sup>메카에 있는 하람 사원

<sup>27</sup> “박카”란 지금의 메카 도시의 옛 이름으로 이 도시안에 이브라힘과 그의 자손 이스마엘이 세운 카으바 신전이 들어 있는 하람 사원이 있다. 이 곳은 아담과 하와가 있었다고 하는 자비의 산이 있는 아라파트 지역과 함께 성역화 되어 있다.

“ 주님께서 코끼리의 무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소식이 이르지  
아니 했느냐 \* 그들의 음모를 파멸시켜 버리지 아니 했느냐 \*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뱀을 보내어 \* 모래와 흙으로 된  
돌맹이들을 던지셨나니 \* 그들은 다 갇아 먹어버린 마른 잎과도  
같았더라” {성코란 105}

에멘의 왕 “아브라하 알아쉬람” 은 사나아에 교회 하나를  
지었고 카으바를 대신하여 그 곳으로 성지순례객들을 유치하려  
하였다. 이 교회에서 금으로 꾸며진 돌을 놓았고 은과 금으로 된  
기둥을 지었고 상아로 된 플랫폼도 놓았다. 그래도 아랍인들이  
계속 카으바로 갔다. 이때 가나나에서 한 남자가 그곳에 이르러  
밤에 대변을 보고 또 벽에가 그 대변으로 더럽혀 그를  
저주하였다. 그리하여 에멘의 왕 아브라하는 화가나 카으바  
신전을 파괴하기로 결심하고 코끼리들과 군대를 인솔하고 메카로  
갔다. 이들 군대가 메카 가까이 왔을 때 메카 주민들은 군대와  
코끼리들에 놀라 두려운 나머지 산으로 피했다. 아브라하 군대가  
코끼리를 카으바쪽으로 가라고 하였을 때 앉아서 움직이기를  
거부하였다. 코끼리를 쇠로 된 기계로 때렸어도 움직이기를  
거부하였다. 그래서 코끼리에게 에멘쪽으로 가라고 하였을 때  
일어났고 달리기 시작하였는데 메카 쪽으로 다시 가라고 하였을  
때는 다시 앉았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하 군대에게 새들을  
보냈고 각각의 새들의 입과 양 발에 3개의 돌을 가지고 와,  
아브라하 군대와 코끼리들을 멸망시켜버렸다. 이러한 사건은  
바로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태어난  
그해였다.

그 다음에 성서가 내려왔다. 유대교 그 다음 기독교가  
내려왔는데 그 모든 성서들도 카으바를 깨닫지 못하였다. 그  
성서들이 내려와도 아랍인들이 카으바(**알라** 하나님의 최초  
집)에서 **알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과 우상을 계속 그대로  
예배하였다. 그런데 **알라**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깨닫지 하여  
인간들에게 자기 명령을 알려주고 인간들에게 올바른 교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 마지막 성서를 가진 마지막 사도를 보내주셨다.  
그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이다. 그  
때는 카으바를 깨닫지 하였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우상을

예배하는 인간을 다신교 어둠에서 해방시켜 **알라 하나님**  
유일성에 대해 믿게 하였다.

그리고 메카를 정복하던 해에 예언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메카에 입성하였을 때 카으바 신전 주변에는 360 개의 우상이  
있어 우상 숭배에 진리인 이슬람이 승리하였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일러가로되 진리가 도래하였으니 허위가 멸망하리라  
실로 허위는 멸망토록 되어 있노라” {성코란 17:81}

“일러가로되 진리가 도래하였으니 허위가 멸망하여 다시 오지  
못하리라” {성코란 34:49}

가) 최근에 밝혀졌다:-

최근에 메카가 모든 우주에 가운데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동그라미를 그린다고 하면 이 동그라미는 우주를 대표하고  
이 동그라미의 중심이 바로 메카이다.  
그 뿐이 아니고 시간적으로도 우주의 중심에 있다. 거기에  
메카의 경도는 시간적으로 정확히 중심에 있다. 그래서  
메카와 주변은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모든 우주의 중심에  
있다.<sup>28</sup>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축복받은 성서로써 그 이전에 있었던 말씀을  
확증함이라 이는 그대로 하여금 그 고을의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이나 내세를 믿는 자는 이 성서를 믿으며  
예배를 지키노라” {성코란 6:92}

---

<sup>28</sup>이슬람 및 최근 과학 백과 사전, 성코란의 과학적 기적

그 고을은 메카이며 거기서 축복받은 마지막 성서인 이슬람의 확산이 시작되었다.

- 메카와 카오바와 관련된 것:

(1) 잠잠물:

잠잠 우물은 메카에 위치하며 이 장소(메카)와 예언자 “이브라힘” 과자기 아들 “이스마엘” 과 “이스마엘” 의 어머니 “하자르” 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물질적 근거 및 기적 중 하나이다.

거기에서 잠잠 우물은 심하게 결정화된, 불투명한 화성암 중앙에 있다는 것은 보통 평범한 일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이 우물은 몇 번 더럽혀졌고 다시 파게 되었어도 3,000 년 이상 계속 흐르고 있다.

잠잠 물 특정 중 : 최근 과학적 연구에서 잠잠 물은 특별한 화학 및 자연의 특성을 가지며 1L 에 약 2000 mg 의 유용한 화합물이 있는 반면에 메카에 있는 다른 우물이나 지하수의 염류 비례는 각 1L 에 260 mg 도 안된다. 그래서 잠잠 물 특성이 주위에 있는 지하수 특성과 다르고 특별하며 많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밝혀졌다.

아마도 이 현상 (물은 먼거리에서 잠잠 우물로 흐른다는 계)은 메카는 지구 중력 중심이라는 사실을 지지한다.

(2) 흑석(하자르 아스왓)

무함마드사도는 말씀하셨다.

“ 하자르 아스왓이 천당에서 내려왔다...” 타르마지가 전달했다.

하자르 아스왓은 보통 지구의 돌이 아니라고 밝혀졌으며 지구의 돌 특성과 다르다. 무함마드사도의 말씀뜻이 하자르 아스왓은 지구의 돌이 아니다.

나) 카오바 주위의 순행:

순례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검은 건축물인 카오바 주위를 순행하는 경배는 **알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며 **알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시스템과 조화되고 어울리는 경배밖에 없다. **알라 하나님**께서 카오바 주위의 순행을

명하셨을 때 7 번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행하라고 명하시었다.  
이 조화를 잘 명상해보면:-

- 1- 원자에 있는 핵 주위의 전자들은 7 개의 에너지 준위  
궤도에서 회전된다. 즉 핵 주위에는 카르바 주위의 순행  
회수 (7 회)와 똑같이 7 개의 에너지 준위 궤도가 있다.
- 2- 이 전자들이 핵 주위에 회전될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된다. 카르바 주위를 순행하는 방향과 마찬가지로이다.
- 3- 지구가 자기 궤도를회전할 때와 똑같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된다.
- 4- 지구는 태양 주위를 회전될 때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된다.
- 5- 모든 행성이 태양 주위에 회전할 때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 6- 남성의 정액은 여성의 달걀 주위를 회전할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이 사실들을 보면 **알라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이슬람의 기둥과 조화되게, 일치하게 창조하셨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예배할 때 수주드 자세<sup>29</sup>는 하람 성원 - 카르바 방향으로  
예배**

카르바 방향으로 수주드 예배는 인간을 두통, 피로감 등과  
같은 여러 신체나 정신 질병을 방지한다고 밝혀졌다.  
신체에는 양전하가 있는데 이 전하가 많아질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기도하면서  
카르바 방향으로 수주드 자세를 하면 그 불필요한 전하들이  
지구로 운송되며 신체에서 배출되게 된다.

---

<sup>29</sup>양발의발가락과 양 무릎과 양손과 이마를 바닥에 닿게 하는 자세

## 셋째 : 사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혈통과 특성과 신탁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혈통: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코라이시” 종족에 제일 위대한 분이며 자기의 할아버지가  
“하셈 입느 압드 마나프” 라고 부르니 자기의 가족은  
“하시메야” 가족이라고 부른다.

### - 하셈 :

그는 메카에 자신의 종족들을위해 첫 번째로 적과 격돌하고  
박살내어 메카에서 순례하는 자들을 공급하여 그 말  
때문에 그의 이름을 하셈(격돌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 - 압드 모탈렘 :

그는 너무 관대하며 “코라이시” 종족은 “관대” 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살고 있었던 시대로 돌아보면:

그 시대는 환각과 방황 시대였는데 인간들이 무식하였고  
우상을 예배하고 심판의 날에 대해 안 믿었고 진짜 국가에  
필요한 요소도 없었고 정보도 없었고 대적을 반격할 군대도  
없었고 권리와 의무 사이를 분리한 헌법도 없었고 처벌을  
주는 법들도 없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예의가 바른, 깊은  
생각을 가진, 선견지명이 있는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태어났다.

- 메시지 언명 이전, 이후에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상태:



-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40 세 살면서 자기의 종족에게 평판, 기민, 정직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히지라(메카에서 마디나로 이주)를 정하셨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하여 자기의 사촌인 “알리 입느 아비 탈렘”한테 맡기고 갔다.

“코라이시” 종족은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 대하여 잘 믿었고 정직이라고 부르곤 하였다.

또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태어났을 때부터 우상이나 석상에게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였다.

또한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영감, 계시(와히)를 받았을 때부터 **알라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 최선을 다 노력하였고 계속 강한 인내심으로 잘 견디곤 하였다.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알라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외에 다른 신을 숭배나 예배를 하지 말고 혈연 관계를 끊지 말라고 권유하였다.

그 때도 책을 작성하여 왕들에게 보냈는데 그 책들 내용은 이슬람에 대해 믿으라고 권유하는 것이었고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교시를 설명해주었다.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 “하바샤-시리아”의 왕인 “나가시”, “이집트”의 왕인 “모가우가스”, “페르시아”의 왕인 “키스라”, “롬 - 그리스”의 왕인 “카이사르”, “바레인”의 왕인 “몬제르 입느 사위”, “야마마”의 왕인 “하와자 입느 알리”, “다마스쿠스”의 왕인 “하레스 입느 아비 샴르 알-가싸니”, “오만”의 왕인 “짜이파르” 과 남동생인 “압드 입느 알-잘렌디”에게 이슬람에 대한 책을 보내주었다.

그 왕들중에 이슬람에 대해 믿었던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다.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면 이 신문을 유일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우상과 석상을 숭배하는 사회한테서 계시되었는가?

당연히 아니다.

“그것은 <sup>30</sup>그에게 내려진 계시라<sup>31</sup> \* 그는<sup>32</sup>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부터<sup>33</sup> 배웠노라” {성 코란 53:4,5}

그러니까 이슬람을 계시하시는 분은 바로 **알라  
하나님**이시다.

- 무함마드사도의 무식 및 신탁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무식하였는데 이 무식은 예언을 보여주는  
근거이며 심판의 날까지 유식인들에게 가르쳐주셨다.  
무식하였어도 대통령들, 군인들, 지도자들, 작가들,  
장로들, 선생들, 회계사들, 정치인들, 과학자들, 설교자들,  
판사들과 같이 여러 분야에서 가르쳐주었다.  
무식하였어도 훌륭한, 믿을 수 없는, 다른 인류가 모르는  
과학적 진리와 사실을 최근 과학이 밝히기 전에  
알려주었다.

“그의 욕망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sup>34</sup> \*그것은 <sup>35</sup>그에게  
내려진 계시라<sup>36</sup> \* 그는<sup>37</sup>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부터<sup>38</sup>  
배웠노라” {성 코란 53:3,4,5}

---

<sup>30</sup>모함메드가 말하고 있는 코란

<sup>31</sup>와히: 계시, 영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나 본 절의 의도는 천사들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이된다.

<sup>32</sup>선지자 모함메드

<sup>33</sup>가브라엘 천사

<sup>34</sup>선지자 모함메드가 그의 어떤 욕망이나 개인적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하여 계시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

<sup>35</sup>모함메드가 말하고 있는 코란

<sup>36</sup>와히: 계시, 영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나 본 절의 의도는 천사들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이된다.

<sup>37</sup>선지자 모함메드

<sup>38</sup>가브라엘 천사

그러니까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진짜 **알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도이다.

## 넷째 :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혀와 귀와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염원한다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인간 중에 제일로 **알라** 하나님을 염원하고 숭배하고 제일로 **하나님**을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니며 자기 가족도 친구도 그랬다.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입느 하반"이 다음 이야기를 전하였다.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아내인 "아이샤" 한테 물어봤는데: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제일 이상한 것이 뭐냐?

"아이샤"가 그렇게 대답하였다.

" 하루는 밤에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와서 자려고 들어갔는데 저(아이샤)에게 '**알라** 하나님께 예배를 해보자'라고 하고 일어나 (우두<sup>39</sup>)를 하였다.

---

<sup>39</sup>예배를 올리기 전에 먼저 용모를 단정히 하고, 청결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 먼지나 스모그에 전체가 노출되는 신체 부위를 씻어내야 한다. 이렇게 씻는 것을 세정(우두)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행하는 것이다.

- 1- 숭배와 청결을 위해서 세정한다는 의사를 밝힌다.
- 2- 손을 손목까지 세 번 씻어낸다.
- 3- 입을 물로 세 번 헹구 낸다. 될 수 있으면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4- 콧구멍 속으로 물을 들이켜 세 번 씻어낸다.
- 5- 얼굴 전체를 양손으로 세 번 씻는다.
- 6- 오른팔을 팔꿈치 끝까지 세 번 씻고 다음에 외쪽 팔도 같은 식으로 씻는다.
- 7- 머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손을 적셔서 한 번 닦아 낸다.
- 8- 귀 안쪽은 집게손가락으로, 귀 바깥쪽은 엄지손가락으로 닦아낸다. 젖은 손으로 해야 한다.
- 9- 목둘레를 적신 손으로 닦아 낸다.
- 10- 양발을 발목까지 세 번 씻는다.오른발부터 시작한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울었는데 (루꾸 자세<sup>40</sup>)를 하면서도 울었고 그 다음에 (수주드 자세)를 하면서도 울었고 (졸루스 자세<sup>41</sup>)를 하면서도 울었다.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계속 우는데 그 시대에 살던 "빌랄"이라는 분이 왔었다. 그 때는 "아이샤"는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알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좋아하시고 당신이 하셨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셨는데 왜 우냐고 물어봤다.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다음과 같은 코란 성구가 내려와서 우는 것이라고 하였다.

“천지창조를 보고 또 낮과 밤의 변화를 보라 이해하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 권능의 상징이라 \* 서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하나님을 염원하고<sup>42</sup> 천지창조를 숙고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들이 말하길 주여 당신은 아무 의도없이 창조하지 아니하셨나니 당신에게 영광을 드리나이다 저희를 유황불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소서” {성 코란 3 190,191}

그 다음에 "이 성구를읽고도 무시하는 자는 비애다"라고 하였다.

그렇다.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1 초라도 **하나님**을 염원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개인장소이든 공공장소든, 사람이 있는 곳이든 사람이 없는 곳이든, 편리할 때든 어려울 때든, 아침이든 밤이든 계속 **알라** **하나님**을 염원하곤 하였다.

---

<sup>40</sup>예배를 하면서 머리를 직각으로 구부려, 손바닥을 무릎 위에 올려놓는 자세

<sup>41</sup>왼발 바깥쪽 그리고 오른발 발가락-꿈추 세운다-을 바닥에 닿게 하고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는 자세

<sup>42</sup>혀와 귀와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염원하다.

## 다섯 째 : 현세의 매력에 대해 거부감 및 싫음

다시 묻자: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창조주이신 **알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면 고문과 박해를 당하였는데도 왜 계속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해 믿으라 권유하였을까?

자기의 반대론자의 말로 그가 합리적인 온당한 사람이었는데 무슨 목적이 있었는지 모른다!!

돈이나, 국왕이나?

코라이시 불신자들은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원하는 것이 돈이든 국왕이든 다 해주고 대신 권유하고 있었던 이슬람이라는 신탁을 그만하라고 열심히 노력하였는데 거부하였다.

그러니까 무함마드사도는 현세의 모든 매력이나 아름다움을 다 거부하였고 싫어하였다.

게다가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전쟁에 이겼을 경우에 전리품이나 돈을 얻으면 자기가 갖지 말고 고아와 가난한 자에게 주곤 하였고 자기가 고통스러운 메트위에서 자곤 하였다.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금욕하게 살았고 자기 아내나 친구들에게도 금욕하게 살기 위하여 가르쳐주었다.

그러니까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진짜 **알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도이다.

## 여섯째 :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신탁 밝힘 후 이교도들과 불신자들의 태도 및 알라 하나님의 이슬람 승리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이슬람이라는 신탁을 밝히자 이교도들과 불신자들의 태도는 반대하고 막는 것이었다.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와 그의 친구와 가족과 이슬람에 대해 믿었던 모든 사람을 반대하여 고문하였다. 그리고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와 그의 친구들의 강한 인내심을 보이는 본보기 많다.

예를들어,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친구 중 (아잔<sup>43</sup>)을 하는 "빌랄". "빌랄 입느 라바흐"라고 하였는데 "오마야 입느 칼라프"라는 폐하의 노예였다. "빌랄"은 이슬람에 대해 믿는다고 밝힌 후에 자기의 폐하가 고문하였는데 자기의 목 주위에 밧줄을 묶고 소년에게 주어서 메카에 있는 산에서 끌어내었고 막대기로 때렸고 굶을 때까지 밥이나 물을 주지 않았으며 정오 때 태양의 빛이 많은 더운 곳으로 보내 큰 돌을 등에 지게 하였으며 "죽을때까지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와 이슬람에 대해 안 믿을 때까지 아니면 "알라트 - 알오짜"라는 우상에 대해 숭배할 때까지 계속 고문할 것이다"라고 "빌랄"에게 말하였다. 그런데 "빌랄"은 "아하둔 아하드" 즉 알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반복하여 말하였다.

"빌랄"뿐만 아니라 심한 고문을 받았어도 계속 이슬람에 대해 믿었던 다른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친구도 많았다.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후에 예언론을 진술한 "거짓말한 모사이라마"가 나타났는데 많은 위선자들도 따라하였는데 이슬람과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 대해 믿는 신자들이 막았다. 결국은 무슬림들이 그 위선자들을 이겼고 "거짓말한 모사이라마"를 죽여버렸다.

<sup>43</sup>예배를 알리는 소리

그리고 **알라 하나님**께서 무슨 태도를 하였는지 파악해보면 예언론을 진술한 "거짓말한 모사이라마"는 지게 되는 반면에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승리하게 되었다. 얼마나 명암 차이가 있는가! 게다가 역사 책에서 "모사이라마"라고 나오면 이름 앞에 "거짓말한"이라고 붙어 나오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라고 나오면 이름 옆에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라고 붙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알라 하나님**께서 각 (아잔)이나 (이까마<sup>44</sup>)때 **알라 하나님**의 이름과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이름이 같이 나오게 하였다.

#### 아잔 할 때:

아쉬하두 안나 라 일라하 일랄라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외에 신이 없음을 증언하노라), 2번 반복

아쉬하두 안나 모함메단 라수물라 (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언하노라), 2번 반복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다고 밝힐 때도 위와 같이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신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언하노라"라고 해야 무슬림이 되는 것이다.

**알라 하나님** 위대하신 이여 영광을 누리소서!

그러니까 **알라 하나님**께서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왜 지원해주셨을까?  
정답은 바로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알라 하나님**의 진짜 사도라서 지원하시는 것이다.

---

<sup>44</sup>예배를 알리는 소리가 나면 예배자는 예배 준비를 하고 예배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소리이며 아잔과 비슷하지만 간단한 차이점이 있다.



**일곱 번째 :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기적들  
제일 위대한 기적은 바로 "성 코란"이다  
성 코란 : 여전히 남는 기적**

하나님께서서는 마지막 사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여러 가지 기적과 증거로써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사도임을 입증할 수 있게 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분이 계시하신 마지막 성서인 성코란에 여러 가지 기적을 담아 주심으로써 코란이 문자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저자는 어떤 인간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셨다.

코란은 하나님께서 책의 형태로 편집하신 다음에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넘겨 주시어 사람들을 특별한 생활 방식으로 초대하기 위한 준비 행위로서 발행, 배포케 한 그런 것이 아니다. 코란은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한꺼번에 계시받지 않았지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23 년동안 조금씩 조금씩 계시받았다.

**알라 하나님께서 성 코란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가브리엘"천사를 통하여 계시받은 후에 암기하고 외웠다.코란은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암송한 뒤 그의 교우들이 받아 적었다. 그들은 차례로 코란을 암송하고 받아쓰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검토받았다. 또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가브라엘 천사와 함께 일년에 한 번씩, 그의 마지막 해에는 두 번, 코란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죽은 후 코란을 외운 그의 교우들이 많았고 벌써 뼈와 가죽과 나뭇 잎에 적혀 있었다. 그리고 1 번째의 칼리파인 "아보 바크르" 그다음에 2 번째의 칼리파인 "오마르 입느 카탐"는 이러한 자료를 지켰고 3 번째 칼리파인 "오스만 입느

앞판"에게 성 코란을 모스하프로 하여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고 명하였다.

코란이 계시된 때부터 오늘날까지 수많은 무슬림들이 전 코란의 한 글자, 한 글자를 모두 암기한다. 그중에는 10 살 때까지 전 코란을 암송하는 무슬림들도 있다. 코란은 수세기에 걸쳐 단 한 글자도 변형됨 없이 그대로 보존되어 오고 있다.

성 코란은 모순이 없고 실제와 반대하지 않아서 당연히 꼭 이 코란은 **알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일반 사람이 적는 것이 아니다.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코란이 위조된 것이라면 그들은 큰 모순들을 그 안에서 발견했을 것이다.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 왜 그들은 코란을 숙고하지 않느냐 만일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왔다면 그들은 그 안에서 많은 모순을 발견했으리라” {성 코란 4:82}

성 코란은 인자한 도덕과 올바른 예절과 반대하는 것을 권유하지 않는다.

성 코란은 **알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갖고 있었던 본능과 본성을 거스르지 않는다.

성 코란 기적들 중, 1400 년 전 계시된 코란은 최근 과학자들에 의해 증명된 여러 사실들을 이미 언급하고 있다. 이 사실은 코란의 저자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나 그 외 다른 어떤 인간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뜻하며 코란은 **하나님**께서 사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계시하신 문자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첨단 장비와 정교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최근 입증된 발견들을 1400 년 전 어떤 사람이 알고 있었다고 상상하기는 힘들다.

예를들어,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인도하고자 하는 자를 위해서는 그들의 가슴을 이슬람에로 열었으며 그분의 뜻이 있어 방황케 하고자 하는 자를 위해서는 그들의 가슴을 좁게 하시니 이는 그들이 하늘에 오르는 것과 같더라 이렇듯 하나님은 믿음을 거역하는 이들 위에 벌을 내리심이라<sup>45</sup>” {성 코란 6:125}

최근 과학적으로 잘 아는 사실은 하늘 쪽에 오르는 것은 가슴을 좁게 하는 것이다. 하늘 쪽으로 올라가면 기압은 낮아지기 때문이다. 성 코란에 나온 내용과 똑같이 이 과학적 사실이 나왔다.

그 뿐만 아니라 1400 년 전 계시된 코란은 최근 과학자들에 의해 증명된 다른 사실들도 있다.<sup>46</sup>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사도임을 보여주는 기적들 중에 다음에 일어날 과학적 사실을 1400 전 이미 예언된 것이다. 이러한 기적들 중에 하나를 언급할 것이다:

무함마드사도가 말씀하셨다.

---

<sup>45</sup>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까드하”와 “까드르”이다. 그 계획은 불변이며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의지이다. 그것은 육체적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세계에서는 정의와 자비와 은혜와 징벌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인간이 믿음을 거역할 때 그는 신의 반역자가되어 그의 사악함은 더욱 가속화된다. 그래서 그는 영적 삶을 가질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도 없게 된다. 또한 그가 하나님의 자비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신적 삶과 회복은 마치 하늘에 올라가는 것처럼 어렵게 된다.

한편 예수는 이 진리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있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가복음 4 장 25 절) “또 가라사대 이러하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 장 65 절)

<sup>46</sup>코란과 순나에 계시된 태아의 발생 단계, 라는 책 참조

‘자궁에서 숨어있는 사실은 코란에 기적으로 계시된다, 라는 책 참조, "카림 나집 알-아가르"작가

‘코란에서의 과학적 기적들, 이라는 백과 사전 , "카그롤 알-낙가르" 박사

“흙은 꼬리뼈를 제외하고 모든 인간을 먹을 것이다. 꼬리뼈에서 창조되었고 그것만 남을 것이다”

알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점토로 만드셨으며 창조의 단계 하나 하나씩 진화시키셨다. 창조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죽어서 분해된 다음에 물론 다시 부활시킬 능력이 있을 것이다. 과학적으로도 이것이 입증되었다. 거기에서 최초의 과학 조사는 죽는 사람의 인체를 묘에서 물과 점토로 분해된 다음에 분해되지 않은 겨자씨만큼 작은 “꼬리뼈”가 남는다고 밝혔다.

“스비만”이라는 과학자는 이 과학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입증하여 노벨 상을 받았지만 이 과학적 발견에 대해 제일 먼저 알려주었던 분이 “스비만”이 아니고 무함마드사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였다.

그런데 이 지식은 무함마드사도가 어떻게 알았느냐?

다음에 일어날 과학적 사실을 1400 년전 어떻게 이미 예언할 수 있느냐?

알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식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니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알라 하나님의 사도이다.

코란과 순나에 있는 과학적 기적을 더 알기 위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 1- ‘코란과 순나에 계시된 태아의 발생 단계’, 메카에 있는 코란 및 순나의 과학적 기적 단체.
- 2- ‘자궁에서 숨어있는 사실은 코란에 기적으로 계시된다’, 라는 책 참조, "카림 나집 알-아가르"작가.
- 3- ‘코란에서의 과학적 기적들’, 이라는 백과 사전, "카그롤 알-낙가르" 박사.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사도임을 보여주는 기적중 : 알라 하나님께서 무함마드사도의 예배에 응답해주신다

무함마드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알라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 응답해주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사도임을 보여주는 기적중 : 지각 기적들이다.

예를들어, 달이 둘로 분리되는 기적

“심판의 날이 가까워 오매 달이 둘로 분리되더라<sup>47</sup>” {성 코란 54:1}

메카의 불신자들이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 찾아와서 기적 한 가지를 보여 달라고 했을 때, 그 분은 달을 쪼개는 기적을 보여주셨다.<sup>48</sup>

그리고 “자그롤 알-나까르” 박사는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언급할 것이다.

“데이베드 모세 빗곡” 이라는 영국 젊은이인데 이슬람에 대해 믿은 후에 자기의 이름을 “다우드 모세 빗곡” 이라고 하였다.

“자그롤 알-나까르” 박사가 영국 섬에 있는 가르테프 대학교에서 무슬림과 비무슬림 참석자들하고 재미있는 대화를

<sup>47</sup>선지자 모함메드에게 일어났던 기적 가운데 하나로 다음 3 가지 뉴앙스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메카 계곡에 있었던 선지자 모함메드와 그분의 동료들 그리고 믿는 일부 신도들이 보는 앞에서 달이 두 갈래로 분리되었다는 것

둘째,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을 때 그 예증으로서 달이 두 갈래로 분리될 것이라는 것

셋째, 달이 두 갈래로 분리되듯 모든 것들은 진실과 허위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은유법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둘째 해설은 가능성이 아주 약한 것으로 대다수 해설가들은 보고 있다 (Abdullah Y.Ali, op. cit, p.1454 Note No.5128).

<sup>48</sup>보카리가 전달하였다.

하면서 강의를 한 후에 그 영국 젊은이는 일어나서 이슬람 당의 총재로서 “다우드 모세 빗곡”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하였다.

그 강의에 참석자 한 명이 문의를 던졌는데 “달이 둘로 분리되는 현상은 성 코란의 과학적인 기적을 보여주는 근거냐” 물었다.

그리고 “자그롤 알-나카르” 박사는 답장을 준 후 이 영국 젊은이 일어났고 이 문의와 관련된 추가 내용이 있다고 하였다.

“어떤 무슬림 친구가 있었는데 영어로 번역된 코란을 주었는데 제일 먼저 읽었던 성구는 **심판의 날이 가까워 오매 달이 둘로 분리되더라** 였다. 이 성구는 내가 이슬람에 대해 믿게 되는 이유였다. 이 성구는 읽은 후 궁금한게 생겼다. 어떻게 달이 둘로 분리되고 다시 결합될 수 있을까?.. 계속 궁금해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우연히 B.B.C 이라는 채널에서 “제임스 바르크, James Burck” 라는 영국 아나운서가 우주 미국 과학자 3 명과 대화하고 있었다. 그 때 달에 갔던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 여행을 하기 위하여 수십 억의 달러의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굶는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더 보람이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우주 과학자들은 달에 가는 여행을 해서 이 돈의 10 배를 내도 사람을 못 설득할 만큼 믿을 수 없는 과학적 발견을 하였다고 했다. 아나운서가 무슨 발견인 지 물어봤는데 답은 달이 둘로 분리된 뒤 다시 결합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것이다. 그 때는 분리되었을 때 “Rimacr Lunar Rilles” 라는 쪼개짐이 생겼다. 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고 어떻게 1400 년 전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이 기적을 봤는지 궁금하였다. 결론은 코란에서 나와있는 말씀은 다 진짜다. 그 다음에 이슬람과 코란에 대해 더 읽었고 이슬람에 대해 믿게 되었다.” 라고 하였다.

그 때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후에 이러한 말밖에 안하였다” 라고 “자그롤 알-나카르” 박사가 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분의 예증을 대지 안에서 그리고 그들의 영혼 속에서 보여 주리니 이것이 진리임을 그들이 알때까지라 주님이 모든 것에 대한 증인이라는 것으로 충만하지 않느뇨”

{성 코란 41:53}

그러니까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진짜 **알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도이다.

## 여덟 번째 :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예절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실로 그대는 고상한 성품의 소유자로” {성 코란 68:4}

무함마드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갖고 있었던 예절을 간단히 몇 가지를 언급할 것이다.

1- 정직

2- 솔직함: 이 2 개의 특성- 정직 및 솔직함 - 이름으로

메카에서 마디나로 이주하기 전부터 부르게 되었다.

3- 수줍어 하심이 크다 : 인간 중에 제일로 수줍음을 가지셨다.

사람 눈을 직접 못 쳐다볼 만큼 수줍어 하심이 컸다.

4- 관대 : 신앙생활에 충실하여인간 중에 제일로 관대하셨다.

5- 용서: 누구나 나쁜 뜻을 했어도 할 수 있으면 다

용서해주었다.

6- 자비롭다 : 신자나 불신자들한테 자비를 베풀었고 훌륭한

거래와 예의가 바르셨다.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대를 보낸 만백성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라<sup>49</sup>”

7- 혈연 관계 : 인간 중에 제일로 혈연관계를 지켰다.

---

<sup>49</sup>하디쓰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로 내가 은혜요 길이니 이 은혜를 받아들이며  
감사드리는 자가 현세와 내세에서 행복하리라” (알하피즈 이브누 아싸키르가 전함)



- 8- 충성 : 평화로운 시기나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약속을 잘 지키고 누구나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은혜를 주면 다했다.
- 9- 선호함 :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다른 인간들을 자기보다 더 선호하였고 현세의 매력보다 **알라** **하나님**의 내세를 선호하였다.
- 10- 평등함 : 감사함에 인색치 아니하시며 평등함을 잘 지켰다.
- 11- 깊은 생각 : 분별이 있는 생각을 하였고 선견지명이었고 지혜로우셨다.
- 12- 용기 : 전쟁 및 신탁이 제일 좋은 근거
- 13- 가슴이 넓다 : 빨리 화나지 않았다
- 14- 겸손 :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전혀 거만하지 않았고 겸손하였다. 가난한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누구나 만나고 싶으면 만나곤 하였다.
- 15- 인내심 : 인내심이 강하시며 이슬람 종교를 확산하려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었다.
- 16- 상담 : 어떤 결정을 하기 전 자기 친구에게 먼저 상담하였고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았고 고려하였다.
- 17- 금욕주의 및 만족함
- 18- 경건 : **알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명하시면 제대로 다 순종하였고 **알라** **하나님**을 경건하였다.

- 19- 사교성 :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와 함께 있기 좋았다.
- 20- 좋은 동반자 (친구) : 자기 친구에게 계속 안부 인사 해주곤 하였고 친구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방문해주곤 하였고 친구들이 필요할 게 있으면 해주곤 하였다.
- 21- 털어 놓았다 : 사악하지 않았고 악하지 않았다.

이 예절이 다는 아니며 간단히 언급한 것이다.

그러니까 무함마드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진짜 **알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도이다.

## 무함마드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캐릭터 및 로직

무함마드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캐릭터 및 로직 중 몇 가지를 간단히 언급할 것이다.

- 1-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 2-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긴 시간동안 침묵하였고 진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때만 이야기하곤 하였다.
- 3- 말을 시작할 때와 끝낼 때 **알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였고 **알라 하나님**을 계속 염원하였다.
- 4- 말을 할 때는 간단히 이야기하는데 추론할 게 많았고 이해하기가 쉬었다.
- 5-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호기심도 없고 단축도 없이 정사를 분리할 수 있었다.
- 6- 하늘 방향으로 보는 것보다 땅 방향으로 보곤 하였다.  
(거만하지 않았고 겸손하였다는 뜻이다.)
- 7- 무뚝뚝하지 않았고 통명스럽지 않았다.
- 8- 사악하지 않았다.
- 9- 자기를 위하여 화나지 않고 **알라 하나님**을 위하여 화나곤 하였다.

10-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미소는  
웃는 모습이였다.

11-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자기  
친구들에게 유머 감각이 있게 장난 치곤 하였고 솔직히  
이야기 하곤하였다.

이 특성이 다는 아니며 간단히 언급한 것이다.

그러니까 무함마드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진짜 **알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도이다.

## 무함마드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완벽한 모습, 용모

사람의 성격은 좋은 몸과 모습이 있으면 완벽하게 되는 것이다. 무함마드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다 갖고 있었다. 좋은 모습, 좋은 캐릭터, 좋은 마음, 좋은 생각, 좋은 특성, 좋은 성격을 다 갖고 있었다. **알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 중에서 무함마드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선택하셨고 위대한 이슬람이라는 성서를 그에게 맡기셨고 전달하라고 하셨다.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모습을 간단히 언급할것이다.

1-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얼굴은

보름달 밤의 달처럼 반짝 반짝 빛났다

2-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잘 생겼다.

3- 얼굴 색깔은 피 색깔 및 흰 색깔이었다.

4- 얼굴은 보름달 밤의 달처럼 둥글었다.

5- 얼굴이 폭신하지 않았다.

6- 뺨이 부드러웠다.

7- 눈은 아이라이너를 한 것처럼 그 만큼 예쁘다.-진짜로

아이라이너를 하지 않았다 -.

8- 눈의 절개는 길었으며 눈에 있는 까만 부분이 아주 까맣고 흰

부분은 밝은 하얗다.

9-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눈꺼풀은

눈이 더 예쁘게 길었다.

- 10-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눈썹은  
    길었는데 양 눈썹은 연결되지 않았다.
- 11-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눈은  
    넓었다.
- 12-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이마는  
    넓었다.
- 13-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코는  
    짧지 않았고 높았으며 볼록하였다.
- 14-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입술은  
    누구보다더 예뻐다.
- 15-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앞쪽  
    치아는 서로 떨어지어 있었으며 이야기할 때 치아 사이에  
    있는 틈에서 빛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 16-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머리카락은 어두운 까만 색이었으며 곱슬머리도 아니었고  
    생머리도 아니었다.
- 17-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머리는  
    작지 않았다.
- 18-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턱수염은 두꺼웠다.
- 19-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목은  
    너무 밝았다.

- 20-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몸은  
적당하게 생겼으며 뚱뚱하지 않았고 마르지도 않았고, 키가  
크지 않았고 작지도않았다.
- 21-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뱃살은  
없었다. 배는 가슴높이와 똑같이 높았다.
- 22-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몸은  
일관성있는 몸이었다.
- 23-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어깨와  
체격은 좋았다.
- 24- 자기를 위하여 화내지 않고 **알라** 하나님을 위하여 화내곤  
하였다.
- 25-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땀은  
진주로 보았다.
- 26-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목소리는 쉬게하였으며 좋았다.
- 27-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화나면  
얼굴이 석류 씨앗색깔처럼 빨게 졌다.
- 28-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무뚝뚝하지 않았으며 잘 웃었다.
- 29-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서  
나는 냄새는 누구보다더 좋았다.

30-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사촌인 (알리 입느 아비 달렙)은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소개하면서 "그와 같은 사람을 그전에 못 보았고 그후에도 못 볼것이다"라고 하였다.

31-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시대 때 살고 있었던 (알바라 입느 아쩨)은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소개하면서 "인간 중에 용모, 예절적으로 제일 좋았다. 얼굴은 검과 같지않았으며 달과 같았다.<sup>50</sup>"라고 하였다.

32-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시대 때 살고 있었던 (자베르 입느 사므라)는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보름달의 밤에 보았는데 달보다 더 잘 생겼다.<sup>51</sup>"라고 하였다.

33-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시대 때 살고 있었던 (가읍 입느 말레크)는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웃으면 얼굴이 달처럼 뽀짝 뽀짝 하였다.<sup>52</sup>"라고 하였다.

34-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시대 때 살고 있었던 (알-라비 벤트 마우즈)는

---

<sup>50</sup>무슬림이 전달하였다.

<sup>51</sup>타르마지가 전달하였다.

<sup>52</sup>보카리가 전달하였다.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보면 태양이 왔다는 느낌이 든다."<sup>53</sup>라고 하였다.

35- (아비 허라이라)이맘은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소개하면서 "무함마드사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보다 잘 생긴 사람이 못 보았고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보다 걸음이 빠른 사람을 못 보았다."라고 하였다.

36-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시대 때 살고 있었던 (아나스)는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손바닥을 만지면 비단보다 부드러웠고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서 나는 냄새보다 더 좋은 향수가 없다."<sup>54</sup>라고 하였다.

---

<sup>53</sup>다라미가 전달하였다.

<sup>54</sup>보카리와 무슬림이 전달하였다.

**최후의 예언자와 사도인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 대한  
천재들의 인정**

현대 시대에 천재 사상가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메시지의 위대함에 대해 인정하는 말들 중에:

1- **라마르텐** : 프랑스 역사가 겸 작가임 - 2월 혁명 후 설립된 정부의 총리 - 1869년에 사망하였다.

라마르텐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슬기롭고, 웅변가고, 철학자고, 연설자고, 선지자고, 전사고, 용감한, 대단한 사상가고, 자신의 생각 및 개념이 올바른 분이었으며 강하고 대단한 연합 제국을 설립하였다. 그러므로 위대하고 대단하며 인류의 모른 훌륭한 특성을 가진 사람을 찾으려면 완벽한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밖에 없을 것이다.

2- **리유나르가** 말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처럼 **알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아라비아 반도의 아들인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자기 평생에 **알라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알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세상에서 제일로 위대한 인류이다.

3- 토마스 아르놀트 : 1864 년에 태어나 1930 년에 사망한 영국 오리엔탈리즘

토마스가 (이슬람 안내)라는 책에서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새로운 종교를 확산하였을 때 완전히 특별한 정치적인 체제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노력은 다 자기 모국의 시민들이 **알라**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 믿게 하고 옛날 제도를 없애기 위함이었다.

다른 천재가 인정하는 말도 많았다.

예를들어:-

1- “준손” : (중동 종교)책에서

2- 1905 년에 사망하였던 영국 역사가 겸 동양 학자인 “알세르 월얌” :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생명)책에서

3- 1795 년에 태어나 1881 년에 사망한 영국 철학자 “토마스 카를레” :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 대한 (영웅)책에서

4- 1828 년에 태어나 1910 년에 사망한 러시아 철학자 “틀레스토이”

5- “알페렛 마르텐” : (중동에서 위대한 종교 지도자)책에서

그리고 영국 백과 사전의 열한번째 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왔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제일 성공한, 위대한 분이였다. 아랍인들이 어둡고 무식한 시대에 살고 있었을 때, 종교 개념이나 사회적 및 정치적인 원칙이 없었을 때, 외부 세계와 연결이 없었을

때, 분해되었을 때, 각 부족이 독립적이었으며 부족들이 계속 서로 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태어났다. 그 때는 유대 종교와 기독교가 발전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하였다.

그런데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몇 년만에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모든 나쁜 습관을 없애버렸고 우상 예배와 다신론을 없애버렸고 유일하신 **알라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고 그 분께만 예배를 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실제로 **알라 하나님**의 선지자와 사도이다.

## 다양한 분야에서 전공한 학자들이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알라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함

그 학자들중에 :-

1- 키스 엘 모르 : 캐나다 사람, 캐나다에 있는 토르네토 대학교의 해부학 학과장 겸 미국 캐나다 배아 및 해부학자 연합 회장, 자기 책은 :(DEVELOPING HUMAN) 이다. 그 책은 8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한 명이 작성한 제일 좋은 책 상을 받았다.

이러한 책에 이슬람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DEVELOPING HUMAN WITH ISLAMIC ADDITIONS 책을 발행하였다.

"키스"는 배아에 대한 성 코란의 성구를 읽었을 때 "분명히 이러한 근거들은 알라 하나님께서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계시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알라 하나님의 사도라고 믿는다"고 말하였다.

2- 조리히 심슨 : 시카구 주에 있는 노르스 보르턴 대학교의 산부인과 및 분이과 전공자.

그리고 "T.V.N 바르산" : 캐나다의 메니토바 주, 위니페그시에 위치한 메니토비아 대학교의 해부학 학과장 겸 산부인과 교수이며 그것에 대해 유명한 작가.

그 두 명이 정액에 대한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2 가지 말씀을 연구하였다. 그 2 가지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  
말씀하셨다.

“태아가 42 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천사를 태아에게 보내어 태아의 모습을 정하고 청각을 창조하시며 시각과 피부와 살, 뼈를 만드십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오 주여, 이 아이가 남자 아이입니까 아니면 여자아이입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분께서 원하시는 성을 정하십니다..”<sup>55</sup>

두번째:-

“여러분 모두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었을 때 40 일 동안 여러분의 몸을 창조한 구성 요소들이 전부 모이게 됩니다..”<sup>56</sup>

또 코란에 있는 성구도 연구하였다.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한 방울의 정액으로 인간을 창조하여 운명을 주었을 뿐이라”

한참은 한방울의 정액으로 인간을 창조한 후 그가 먹을 양식을 베풀어 그가 살아갈 기간과 그가 해야할 일들을 부여했다는 뜻이다.

박사들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 의 위 두 가지 말씀을 집중 연구했으며 첫 40 일이 태아의 뚜렷한 발생 단계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박사는 특히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 의 완벽하고 정확 말씀에 감명 받았다.

조라히 심슨 박사는 협의회 동안 다음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두 하디스(선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어행집)로부터 태아의 주요 발달이 40 일까지 모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배웠다. 다른 연설자 분들의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당시의 과학 지식으로 하디스에 기록된 이런 것을 알았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저는 유전학과 종교학 사이에 어떤 모순점도 발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과학적 접근 방식에 어떤 계시를 더하여 종교가 과학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sup>55</sup> Saheeh Muslim, #2645 에 전함

<sup>56</sup> Saheeh Muslim, #2643, Saheeh Bukhari, #3208

됩니다. 수세기가 지나 그 진실이 입증된 코란의 구절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코란의 지식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T.V.N 바르산 박사는 자신이 조사한 코란의 과학적 기적들에 관해 질문 받았을 때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매우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글을 읽을 수도 쓸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1200 년 전(사실은 1400 년전)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사실에 놀랄 만큼 정확한 진술을 한 글을 몰랐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로 하여금 이러한 진술을 하게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이라는 사실을 제 마음속에 받아 드리는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3- **테자맛 테자순:** 교수는 태국 장 마이 대학교의 해부학과 학장이다. 그는 여기서 의학 교수진의 전 학과장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서 열린 제 8회 사우디 의학 협의회에서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연설하였다.

4- “지난 삼년 동안 저는 코란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연구와 이 협의회에서 배운 바로 이제 1400 년 전에 기록된 코란의 모든 구절이 전부 사실임을 믿게 되었으며 과학적인 수단으로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글을 읽을 수도 쓸 수도 없었는데 이런 진리를 이야기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진실한 사도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진리는 오직 창조주만이 알 수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계시된 것입니다. 이 창조주는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라~일라-하 일랄라 무함마드라쭈를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하나님**의 사도입니다)라고 선언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협의회는 매우 훌륭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립니다..저는 과학적인 관점과 종교적인 관점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또한 참가자들 중 세계적인

과학자들을 만나 친분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얻은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라~일라-하 일랄라 모함메둔 라쑤를라라고 선언한 것과 제가 한 명의 무슬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실제로 **알라** **하나님**의 사도이고 계시받았던 코란은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기적이다.



## 그들이 왜 이슬람에 대해 믿었을까?

앞전에 나온 바와 같이 이슬람이 **알라 하나님**의 종교이며 마지막 사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통하여 보내게 되었고 큰 기적인 성서중 마지막인 “성코란” 을 보내게 되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종교를 자기 종교로 인정하게 되었고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알라 하나님**의 마지막 사도라고 믿었고 “성코란” 에 대해 믿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조사에 따라 이슬람에 대해 믿는 자들이 제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다음에 이슬람에 대해 믿었던 자들 중에 몇 가지를 언급하며 그들이 **알라 하나님**께 받았던 “정신, 심리 은혜” 를 어떻게 잘 이용하였는지 언급할 것이다.

그들은 다음과 같다:

### 1- 사전에 기독교인었던 수학자, “가리 밀라르” 박사

“가리” 박사가 말하였다:

이 종교에 제일로 끌리는 이유는 “믿음의 명확성” 이며 다른 종교에는 이러한 명확성이 없었다.

“가리” 박사가 이슬람 종교에 대해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

“가리” 박사가 무슬림에게 기독교에 대해 믿게 하려고 코란의 과오와 결함을 찾는 목적으로 어느 날 “성 코란” 을 읽었다.

“가리” 박사는 코란이 14 세기전에 작성되었던 옛날 책이어서 사막에 대한 내용만 나온 줄 알았다. 그런데 읽어보니 이 책에 나온 내용은 세계적으로 다른 책에서 전혀 안 나왔다고 밝혔으며 놀랐다.

“가리” 박사는 코란에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자기 딸들과 아들들이나 자기 아내” 카디가” 와 같이 당했던 어려움과 분위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줄 알고 이상하게 코란에서 “마르얌” 이라는 제목의 장을

찾았다. 복음에서나 기독교의 책에서처럼 “마르얌”이라는  
장에서 나온 마르얌에 대한 영광은 없었다.

반면에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아내 “아이샤” 나 자기의 딸 “파티마” 에 대한  
장이 코란에 없었다. 게다가 코란에서 “예수” 이름이 25 번  
나왔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 이름이 4 번 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코란” 이 **알라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알라 하나님**의 마지막  
사도라고 믿게 되었고 이슬람 종교에 대해 믿게 되었다.

## 2- 판산 몬테

판산 몬테가 말하였다:

성 코란이 기독교 역사를 이해하게 만들었다. 거기에서 옛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이슬람 종교의 개념이 거의  
비슷하다. 325 년에 체결되었던 (내기야) 모임을 제외하고  
“예수” 는 신이 아니라는 것이 알려져 있었다. 그 모임때  
유권자의 투표 합계에 따라 한표 차이로 “예수” 를 신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 한 유권자의 투표가 없었으면 참된 이슬람  
종교처럼 기독교 종교에도 예수가 일반 인간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 3- 무함마드아싸드 (리요보릿 파이스)

“리요보릿” 이 말하였다: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궁금하게 되었다. 왜  
기도하면서 이러한 이동<sup>57</sup>을 하나 궁금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맘한테 물어보았다:

“**알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루꾸와 수주드를 반복하여 기도하는  
것을 당신한테 기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 그냥 아무 이동  
없이 마음으로 기도하면 더 낫지 않아요?”

<sup>57</sup>루꾸 자세, 수주드 자세, ... 등

이맘이 답변하였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떠한 식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알라** **하나님**께서 영혼 및 육체를 창조하지 않으셨는가?

영혼과 육체를 창조하셨으니 기도하면 영혼과 육체로 기도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이동과 자세의 뜻을 설명하였다. 그 때가  
“리요보릿” 이 이슬람 종교에 대해 믿게 된 첫번째의 단계였다.

이 외에 나온 예들이 간단히 언급되었는데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슬람 도서관을 참고하십시오.

알라 하나님 존재에 대해 믿는, “모세”의  
 예언에 대해 믿는 유대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예언에 대해 믿을 수  
 밖에 없고, 올바른 생각 및 본능을 가진,  
 “예수”의 예언에 대해 믿는 기독교인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예언자로 믿을 수 밖에  
 없다.

알라 하나님께서 유대교를 보내셨을 때 자기의 예언자  
 “모세”를 통하여 보내셨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보내셨을 때  
 자기의 예언자 “예수”를 통하여 보내셨고 또 최후의 성서인  
 이슬람 종교를 보내셨을 때 자기의 최후의 선지자인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통하여 모든 인류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거기서 유대교에 대해 믿는 자들에게 물어볼 게 있다:

“모세” 예언자를 못 봤고 그의 기적들도 못봤는데 “모세”의  
 예언직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첫째의 답장은: 우리 부모님이 알려주셨다.

거기서 그들에게 또 부모님의 말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아냐고 물어볼 때:

두번째 답장은: 전달자가 기적을 보여주는 근거를 알려주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에 대해 믿는 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면 답장은 위와 같이 나온 2 개의 답장 중에 하나로  
 대답할 것이다.

첫째의 답장은: 우리 부모님이 알려주셨다.

거기서 그들에게 또 부모님의 말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아냐고 물어볼 때:

두번째 답장은 : 전달자가 기적을 보여주는 근거를 알려주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따라서 이슬람 종교를 촉구하는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 대해 믿어야 된다. 전달자가  
알려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기적들은 “모세” 예언자와 “예수” 예언자의 기적들과 비교하여  
2~3 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후의 성서인 “이슬람 종교” 를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게시하셨다. **알라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자에게 주실 게 있으면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주셨다.

예를들어:

**알라 하나님**께서 “모세” 예언자에게 “바다의 분할” 이라는  
기적을 지원해주셨는데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더 위대한 기적인 “달의 분할” 을  
지원해주셨다. “달의 분할” 기적은 “바다의 분할” 보다 더  
깊은 감명을 가지고 있다. 그 때는 누구나 달에 이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전 내용에서 나온 바와 같이 현대  
과학적으로 달의 분할 사실이 밝혀졌다.

유대인들이 “예수” 와 “마르얌” 에 대해 나쁜 말을 하였고  
“마르얌” 이 간음을 한다고 한 다음에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와서 “예수” 예언자와  
관련한 맞는 이야기를 하였다.

또는 기독교인들은 “예수” 예언자가 신이나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후 **알라 하나님**께서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보내셨다. “예수” 예언자는  
인간으로 태어났고 자기의 어머니의 유방에서 젖을 먹었고  
할레되었고 일반 인간처럼 먹고 마시고 자고 오줌, 똥  
싸고..등을 하므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보내셨다.

**알라 하나님**께서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보내셨는데 다음의 말씀을 가지고 보내셨다:

- 1- 일부 불신자들이 선지자에게 와서 말하길, “무함마드여! 그대 주님께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요. 그대 주님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은, 아니면 자비르자다(귀 감리석), 아니면 루비로 되어 있습니까?” 말했을 때, “일러 가로되…” 라고 계시되었다고 풀이되고 있다. 불신자들이 믿는 우상도 아니며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삼위일체(성부=성자=성신)의 신도 아닌 오직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다.
- 2- 모든 일에 있어서 인간이 귀착하는 곳은 곧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뿐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 3- 유대인들은 아지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고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며 불신자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딸들이라 묘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정으로써 본질이 계시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4- 이클라스장을 읽는 자는 코란 전체의 1/3을 읽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다스는 전하고 있다. 코란의 내용을 크게 세가지로 분류한다면 유일신 사상과 규범 및 이야기로 볼 수 있는데 바로 이클라스장은 유일신 사상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장을 읽을 때의 보상도 코란 전체의 1/3을 읽었을 때의 보상과 다름이 없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 “예수”의 기적인 탄생 때 말을 하였고 “나는 **알라** **하나님**의 노예이다” 라고 하였다. 이 기적은 “예수”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일로 좋은 근거이다.

그래서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알라** **하나님**의 최후의 예언자와 선지자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예언자 및 사도직에 대해 믿을 수 밖에 없다.

##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마지막 사도이며 그분 후에 예언자나 사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및 근거들

알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위하여 최후의 예언자인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보내셨다. 마지막 성서를 계시하며 보내셨는데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알라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으로도 지원해주셨다.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마지막 예언자라고 인간들에게 알려주었다. 따라서 예언자와 사도들중에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최후의 예언자이다. 모든 사도가 예언자인 반면에 모든 예언자가 사도 아니라는 것이 알려져 있다. 무슬림들은 선지자들과 그들 중 일부에게 계시된 성서들만이 유일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임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지상 위의 모든 인류중에서 세대에 걸쳐 수천명의 선지자들을 선택하셨으며 그 중 마지막 사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라고 믿는다.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너희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며 하나님의 선지자이자<sup>58</sup> 최후의 예언자라<sup>59</sup>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노라” {성코란 33:40}

<sup>58</sup>선지자 모함메드가 “자이나브”와 결혼을 했을 때 사람들은 말하길 “모함메드는 그의 아들의 부인과 결혼했다”고 하면서 험담하자 이 절이 계시된 것으로 ‘티르미지’는 전하고 있다.

<sup>59</sup>모함메드 이후에는 예언자나 선지자가 오지 아니 한다는 계시로 모함메드가 최후의 선지자이며 코란이 최후로 완성된 **하나님**의 성서임을 말해주고 있다.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말씀하셨다.

“저와 앞전 예언자 이야기는 한 사람이 집을 잘 지었는데 한 벽돌 자리가 비어 있었다.” 저 집 주위에 돌아다니면서 “저 벽돌 왜 안 놓아 집을 완성시키지 않느냐” 고 궁금해서 물어보았다. “제가 바로 그 벽돌이었다” {사히흐 가메가 전하였다}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만인을 위하여 보내게 되었다는 것을 인간에게 알려주었다.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러가로되 백성들이여 실로 너희 모두에게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보내셨노라” {성 코란 7:158}

“하나님이 그대를 보내매 만인을 위한 복음자로 그리고 경고자로서 보내거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더라” {성 코란 34:28}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말씀하셨다.

“빨간 및 까만에게 보내게 되었다” {사히흐 무슬림}

즉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다양한 인류에게 보내게 되었다. 즉 모든 인간에게 다.

코란을 암송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자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와 그분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박해는 너무나 가혹하여 622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주하라는 명을 내리신다. 이 이주는 메카에서 북쪽으로 260 마일 떨어진 메디나라는 도시로의 이주이다<sup>60</sup>.

<sup>60</sup>이 이주는 무슬림력의 시작이 되었다.



몇년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와 그분의 추종자들이 메카로 돌아갈 수 있었을 때 그들은 적들을 용서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당했던 박해 중에 유대인과 카톨릭교도 (롬) 박해가 있었다.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유대인과 싸워 이겼고 (타부크 전투)때도 롬과 싸우러 갔는데 롬이 분할된 다음에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와 싸우기 두려워서 철수하여 결국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이겼다.

이 모든 전투는 이슬람 종교를 확산하여 이슬람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이후에는 예언자나 선지자가 오지 아니 한다는 계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최후의 선지자이며 코란이 최후로 완성된 **하나님**의 성서임을 보여주는 증거를 간단히 몇 가지를 언급할 것이다.:

1-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코란에서 나온 내용과 같이, 또 사도 말씀들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기적과 증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예언과 사도직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으니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알려준 사실을 다 믿어야 된다. 그래서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최후의 예언자와 사도이며 모든 만인을 위하여 보내지게 되었다.

2- **알라** 하나님께서는 “코란” 최후로 완성된 **하나님**의 성서를 모든 인류를 위하여 만드셨으며 최후의 예언자와 사도를 모든 인류에게 언제든 어디든 보내셨다는 것은 무척 지혜로운 일이다. 이어 **알라** 하나님께서 최후의 성서를 왜곡으로부터 잘 지키셨다.

3- 토라, 복음, 힌두교의 책, 등에서 나와 있는 무함마드사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 대한 수많은 포고들:

그 거룩한 책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최후의 예언자와 사도와 최후의 성서를 가진다는 포고들이 많이 나왔다.

4-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메시지와 그 메시지에서 나온 올바른 생각:

**알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예언자 심하게 필요하였을 때, 인간들이 올바른 인도를 필요하였을 때 부패가 확산되었을 때 최후의 사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보내주셨다.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신탁과 믿음을 잘 설명해준 목적으로, 또 복음자와 경고자로서 보내게 되었다.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여 우리가 그대를 보내매 증인으로서<sup>61</sup> 복음의 전달자로서<sup>62</sup> 그리고 경고자로서<sup>63</sup> 보냄이라\* 하나님의 허락에 따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교자로서 불을 비추는 등불로서 보냄이라” {성코란 33:45,46}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들은 예언자이며 무학자 선지자를<sup>64</sup> 따르는 이들이라 그들은 그들의 기록서인 구약과 신약에서 그를<sup>65</sup> 발견하리라 그분은

<sup>61</sup>모든 공동체에 대한 증인

<sup>62</sup>신앙인들에게 천국의 소식을 전하고 복음의 전달자로서,

<sup>63</sup>불신자들에게는 불지옥이 있다는 경고자로서

<sup>64</sup> “움미” 는 글을 읽거나 쓸 수 없는 문맹을 일컫는다. 특히 이절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최후 선지자가 온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 계시된 것으로 신명기

그들에게 옳은 것을 명령하였고 그릇된 것을 금기하였으며 또 그들에게 성결한 것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무거운 짐과 그들의 명예들을 벗겨 주시니 그분을 믿고 그분을 존경하며 그분을 도와 그분에게 계시된 빛을 따르는 이들은 번성하리라” {성코란 7:157}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너희들 중 한 사람을 한 선지자로 보내어 너희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암송하고 너희들을 성결케하며 율법과 지혜를 가르치니 너희가 모르는 것을 일깨워 주도다\*너희가 나를 염원하매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니 내게 감사하고 거역하지 말라” {성코란 2: 151,152}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계시 받았던 메시지를 잘 명상해보면:-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인간에게:

-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사람들에게 신론 유일성에 대해 촉구하며 인간들에게 자기 신이 누군지 알려주고 **알라 하나님**께만 예배하기 촉구하고 **알라 하나님**외에 다른 신을 따라하여 예배하는 것을 금기하였다. 또 사람들에게 어떤 인간이 이슬람에 대해 믿으려면 먼저이슬람을 믿는다고 밝힐 때 "나는 유일신 하나님 외에 신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언하노라"라고 해야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

18 장 15 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모세와 같이 율법을 계시 받은 유일한 선지자는 모함메드이였으며 그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삭의 형제 이스마엘의 가문에서 왔다. 마찬가지로 신약 요한복음 14 장 16 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선지자를 백성들에게 약속하였다.

<sup>65</sup>모함메드

-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사람들에게 무無에서 창조하신 **알라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었다.
  -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알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우주를 창조주이신 **알라 하나님**에 대해 믿게끔 촉구하였다.
  -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우상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이 우상이 유용치 않고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며 우상을 예배하는 것을 금기하였다.
  -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알라 하나님**의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을 금기하였다. 거기서 아랍인들이 돌을 예배하였고 페르시아인들이 불을 예배하였고 유대인들이 자기 성인들을 신으로 간주하였고 예배하였다.  
기독교인들도 인간인 (예수)를 신으로 예배하였다.
  -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인간들에게 **알라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하고 **알라 하나님**에 대해 결점이라는것을 비방하지 말라고 촉구하였다.
  -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살고 있었던 환경에서 **알라 하나님**에 대해 비방한 말이 많이 있었다:
- 가) 아랍인들이 천사가 **알라 하나님**의 딸이라고 비방하였다.  
**알라 하나님**외에 다른 신을 예배하였다
- 나) 유대인이 “오자이크<sup>66</sup>” 가 **알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 예수의 기적도 사실이 아니고

---

<sup>66</sup>바니 이스라엘의 예언자중 하나였다. 그는 어느날에 황폐한 마을을 지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마을을 소생시킬 것인가라고 물었으니 백년전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하여 그를 다시 소생시킨 후 당나귀를 보아라 하고 뼈들을 어떻게 맞추어 그 위에 살을 부합시켰는지 보여주셨다.

거짓말이라고 하였으며 예수는 요람과 그리고 성장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할 것이며 의로운 자들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였다. 게다가 “예수”와 “마르얌”에 대해서도 욕하였고 나쁜 말을 하였다. 거기서 어떤 남자도 마르얌을 스치지 아니하였어도 “예수”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기적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며 마르얌이 간통을 통하여 예수가 태어나게 되었다고 비방하곤 하였다. 유대인의 예언자에 대해서도 비방하였다. 또 다른 예언자에 대한 유대인의 비방도 많았다.

유대인은 자기 예언자와 사도들에 대해서도 비방하였다. 유대인들은 어떤 예언자가 술을 많이 먹는다고 하고 어떤 예언자는 간음과 간통을 범한다고 하고 다른 예언자도 마법을 한다고 비방 하곤 하였다.

다) 기독교인도 **알라 하나님**에 대해 비방 하곤 하였다. 기독교의 한 범주는 예수가 바로 신이라고 하였고, 다른 범주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고, 다른 범주는 **하나님**은 세가지가 있는데 아버지(성부), 아들(성자), 성령님(성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비방하였다.

**알라 하나님**께서 자손을 두셨다고 비방되었는데 앞전 내용에 나온 바와 같이 **알라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두셨다면 이 아들도 신이 되었을 것이다. 아들 한 명 있었으면 또 다른 2, 3 명도 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모든 아들들이 신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은 올바른 본능과 올바른 인식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들이며 다 환각이고 비방이다. 그래서 **알라 하나님**께서는 아들도 없고 부모도 없다.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두셨다 말하는 자들이<sup>67</sup> 있더라 \* 실로 저들은 불결한 주장을 하노라 \* 그때에 하늘이 찢어지려 하고 대지가 갈라지며 산들이 산산 조각이 되려하니 \*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자손이 있다고 불결한 말을 했기 때문이라 \*

<sup>67</sup>천사들이 **하나님**의 딸들이라 주장하는 유대인과 기독교인 및 그밖의 사람들

하나님은 자손을 가질 필요가 없으시때 \* 천지의 모든 것이  
종으로써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이라 \* 진실로 그분은 그들을  
알고 계시며 또한 그들을 헤아리고 계시니” {성 코란  
19:88~94}

그래서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가져오셨던 메시지는 적당하고 과잉없이  
온건성이 있다.

반면에 기독교는 3가지 범주로 나누어졌다. 어떤 것에 대해  
믿으면 다 똑같은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각 범주마다 자기  
개념과 믿음이 달랐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수의 메시지를 믿지 않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힌 상태로 죽게 내버려뒀다. “마르얌”에 대해  
나쁜 비방도 하였다.

그러므로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최후의 예언자이며 사도이고,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가져오셨던 메시지 “성 코란”이 최후의 **알라 하나님의**  
성서이다.

5- [성 코란], 무한한, 영원한, 가장 큰 기적인 “성 코란”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말씀하셨다.

“모든 예언자들이 기적을 갖고 보내지게 되어 인간이 믿게  
되는데 나는 **알라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보카리가  
전달하였다}

거기서 성코란은 모든 만인을 위하여 계시되었고 다른 앞전  
책과 같이 왜곡되거나 일그러지게 되거나 잃게 되는 책이  
아니다.

게다가 성 코란이 제일로 기적적인 수사학으로 적혀 있는  
책이었다. 거기서 아랍인들은 너무 웅변가였는데 성 코란이  
유창한 웅변을 하는 아랍인들에게 도전하였다.

또 코란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적적인 과학이 포함되어  
있었어 서양 과학자들이 이슬람 종교에 대해 믿게 만들었다.  
거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다:

성 코란이 현세 때와 내세까지 무한하고 영원한 큰 기적이다.

그래서 성 코란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최후의 사도와 예언자임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6- 카으바를 우상과 다신교로부터 깨끗이 시키는 것이다. 카으바는 메카에 위치한 하람 성원에 있는데 검은 건축물이며 카으바는 경배의 장소일 뿐 그 자체가 경배의 대상은 아니다. 바로 모든 무슬림들이 예배를 드리는 방향을 정한다. 카으바는 선지자 이브라힘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명으로 지은 숭배 장소이다. 카으바는 무슬림들에게 가장 신성한 곳이다. 카으바의 건물은 원래 아담에 의해 건립된 제단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브라힘에게 모든 인류가 이 곳을 방문하도록 명령하셨다. 이브라힘과 이스마엘은 지상 최초의 **하나님**의 성전 곧 메카의 카으바를 최초로 순례하였다고 한다.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최초의 집이<sup>68</sup> 인류를 위하여 세워졌나니 이는 축복 받는 박카에<sup>69</sup> 있으며 이는 모든 피조물을 위한 길이라” {성코란 3:96}

“하나님이 이브라힘을 신전으로 인도하면서 어느 무엇도 내게 불신하지 말며 순례하는 자와 기도하는 자와 허리 구부려 예배 하는 자를 위해 나의 집을 신성케했노라” {성코란 22:26}

아랍인들이 매년 한번 메카로 찾아 성지순례를 하곤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마귀 때문에 **알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

<sup>68</sup>메카에 있는 하람 사원

<sup>69</sup> “박카” 란 지금의 메카 도시의 옛 이름으로 이 도시안에 이브라힘과 그의 자손 이스마엘이 세운 카으바 신전이 들어 있는 하람 사원이 있다. 이 곳은 아담과 하와가 있었다고 하는 자비의 산이 있는 아라파트 지역과 함께 성역화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성서가 내려왔다. 유대교 그 다음 기독교가 내려왔는데 그 모든 성서들도 카으바를 깨끗이 못하였다. 그 성서들이 내려와도 아랍인들이 카으바(알라 하나님의 최초 집)에서 알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과 우상을 계속 그대로 예배하였다. 그런데 알라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깨끗이 하여 인간들에게 자기 명령을 알려주고 인간들에게 올바른 교리를 설명해주기 위해 마지막 성서를 가진 마지막 사도를 보내주셨다. 그 사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이다. 그 때 카으바를 깨끗이 하였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우상을 예배하는 인간을 다신교 어둠에서 해방시켜 알라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 믿게 하였다.

과연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이주(히지라) 후 8년째에 메카에 입성하였다. 그 때 하람 성원 “카으바” 신전에 들어가 흑석을 받았고 카으바 주변에는 360 개의 우상이 있어 진리인 이슬람이 우상 숭배에 승리하였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4대 칼리프 중의 한 사람인 “알리”가 카으바 신전 주변의 모든 우상을 파괴했을 때 예언자에게 계시된 말씀이 다음과 같다.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일러가로되 진리가 도래하였으니 허위가 멸망하리라 실로 허위는 멸망토록 되어 있노라<sup>70</sup>” {성 코란 17:81}

“일러가로되 진리가 도래하였으니 허위가 멸망하여 다시<sup>71</sup> 오지 못하리라” {성 코란 34:49}

<sup>70</sup> “진리”는 이슬람, “허위”는 불신 및 우상 숭배를 가르키는 것으로 메카를 정복하던 해.

헤즈라 6년 메카 주민들은 모함메드와 체결한 휴전을 위반하였다. 그래서 모함메드를 지원하겠다고 호소한 한 아랍동맹군을 합류시켜 10000 명의 무슬림군대를 지휘하면서 예언자는 메카로 진격하여 갔다. 드디어 무슬림 군대는 승리하고 메카에 입성한 후 “카으바” 신전으로 가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 및 동상들을 파괴하도록 명령하고 예언자는 본 절을 암송하였다고 전하여지고 있다.

<sup>71</sup> 4 번째의 논쟁은 진리가 최후라는 것이다. 진리는 흥망성쇠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사실이다. 이따금 진리가 패배한 것처럼 나타날 지는 모르지만 그 진리는 다시 돌아와



과연 하람 성원 “카으바” 는 사람들이 **알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제 진짜 우상이나 동상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최후의 예언자와 선지자이며 카으바를 우상과 다신교의 애로와 더러움으로부터 벗어나 없애버렸다.

### 최근에 밝혀졌다:

최근에 메카가 모든 우주에 가운데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동그라미를 그린다고 하면 이 동그라미는 우주를 대표하고 이 동그라미의 중심이 바로 메카이다.

그 뿐이 아니고 시간적으로도 우주의 중심에 있다. 거기에 메카의 경도는 시간적으로 정확히 중심에 있다. 그래서 메카와 주변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모든 우주의 중심에 있다.<sup>72</sup>

또 앞전 내용에 나온 바와 같이 순례자들의 예배와 우주 시스템이 얼마나 조화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거기서 순례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카으바 주위를 순행하는 경배는 **알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며 **알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시스템과 조화되고 어울리는 것은 경배 밖에 없다. **알라 하나님**께서 카으바 주위의 순행을 명하셨을 때 7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행하라고 명하셨다. 이 조화를 잘 생각해보면:-

- 1- 원자에 있는 핵 주위의 전자들은 7개의 에너지 준위 궤도에서 회전된다. 즉 핵 주위에는 카으바 주위의 순행 횟수(7 회)와 똑같이 7개의 에너지 준위 궤도가 있다.

---

진리의 균형을 회복한다. 그러나 위선과 허위는 그렇지 못하다. 위선과 허위의 속성은 멸망할 운명에 있기 때문이다 (제 17 장 81 절 참조).

선지자 모함메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신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명되었고 그 분의 신뢰는 물론 메카에서 말씀이 계시되기 전부터 분명한 사실이지만 메디나에서 이슬람이 발전함으로써 전 세계에 더 확고히 나타났다.

<sup>72</sup>이슬람 및 최근 과학 백과 사전, 성코란의 과학적 기적

2- 이 전자들이 핵 주위에 회전될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된다. 카르바 주위를 순행하는 방향과 마찬가지로이다.

3- 지구가 자기 궤도를 회전할 때와 똑같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4- 지구는 태양 주위를 회전할 때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5- 모든 행성이 태양 주위에 회전할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6- 남성의 정액이 여성의 달걀 주위를 회전할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이 사실들을 보면 **알라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이슬람의 기둥과 조화되게, 일치하게 창조하셨다고 인정할 수 있다.

7-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공동체 특성 중에 잘 전달해주는 것임.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한 공동체가 되어 선을 추구하고 계율을 지키며 악을 배제하라 실로 그들이 번성하는 자들이라<sup>73</sup>”** {성 코란 3:104}

---

<sup>73</sup> “무필리흐”는 “아프라하”와 “팔라하”에서 파생된 명사로 그 뜻은 현세와 내세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며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평온한 마음의 정적 상태를 뜻한다.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아자브”란 어휘로 다음 절에서 언급되고 있다.

무슬림 공동체의 이념이 바로 갈등과 불안, 초조, 근심이 배제된 번영과 행복 그리고 평온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선행과 정의를 추구하고 동시에 모든 사악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가장 좋은 공동체의 백성이라<sup>74</sup> 계율을 지키고 악을 배제할 것이며 하나님을 믿으라 만일 성서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졌더라면<sup>75</sup> 그들에게 축복이 더 했으리라 그들 가운데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자도 있었지만 그들 대부분은 사악한 자들이더라” {성 코란 3:110}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나 악을 보면 자기 손으로 직접 바꿔봐라, 못하면 자기 말로 바꿔봐라, 못하면 최소한 자기 마음으로” {무슬림이 전달하였다}

“기적으로라도 나에게 대해 전달해줘라..” {보카리가 전달하였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을 들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줬던 사람을 좋아한다.” {타르마지가 전달하였다.}

따라서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공동체의 특성 중에:

- 알라 하나님의 말씀 및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말씀을 서로에게 잘 전달해주는 것이다.
- 선을 추구하고, 알라 하나님의 종교인 -이슬람-을 추구한다.

---

<sup>74</sup>선지자 모함메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통하여 계시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백성들

<sup>75</sup>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이 모함메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예증들을 믿고 따랐다면

- 계율을 지킨다.
- 악을 배제한다.

그래서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공동체 덕분에 **알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코란”을 지키게 되었다.

예를 들어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친구들, 추종자들, 이슬람 종교 촉구자들, 이슬람 웹사이트를 만든 사람들 등 이러한 사람들이 잘 전달해주는 사람이다.

그런데 “모사이라마” 처럼 거짓말을 전달하고 촉구하는 사람도 있었다.

앞전 내용에 나온 것처럼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후에 예언론을 진술한 "거짓말한 모사이라마"가 나타났고 많은 위선자들이 따라하였는데 이슬람과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 대해 믿는 신자들이 막았다. 결국은 무슬림들이 그 위선자들을 이겼고 "거짓말한 모사이라마"를 죽여버렸다. 게다가 역사 책에서 "모사이라마"라고 나오면 이름 앞에 "거짓말한"이라고 붙어 나오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라고 나오면 이름 옆에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라고 붙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알라 하나님**께서 각 (아잔)이나 (이까마<sup>76</sup>)때 **알라 하나님**의 이름과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이름이 같이 나오게 하였다. 그리고 **알라 하나님**께서 무슨 태도를 하였는지 파악해보면 예언론을 진술한 "거짓말한 모사이라마"는 패배하게 되는 반면에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승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

<sup>76</sup>예배를 알리는 소리가 나면 예배자는 예배 준비를 하고 예배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소리이며 아잔과 비슷하지만 간단한 차이점이 있다.

## 살아남은 그룹

이슬람 종교에 대해 믿는 척하는 몇몇의 그룹이 나타났는데 이 그룹들은 **알라 하나님**과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개념과 원칙을 위반한다. 예를 들어 (시아파)그룹, 이 흩어진 그룹을 구축한 사람이 이슬람에 대해 믿는 척하는 한 유대인이었는데 “압두 알라 입느 사바” 라고 한다. 그 사람이 위선으로 이슬람을 믿는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결점이 없는 아내들에 대해 욕하는 것,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고유 친구와 추종자들에 대해 욕하는 것, 계시를 전달한 “가브리엘” 천사와 “코란”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것, 성서를 일그러지게 하는 것으로 부패된 개념을 만들어 “시아파” 그룹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수니파”는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순나를 따라하는: “시아파”와 같이 흩어진 그룹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저항하였다.

이어 올바른 이슬람 개념은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개념이다.

**종교는 나라와 국민 사이에 전쟁을 일으킨  
주요 원인인가?  
그리고 경기 침체 및 문명 후진성을 일으킨  
원인인가?**

위 질문을 대답하기 위하여,

일단 **알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나라와 올바른 종교가 없는 나라의 상태 두가지 사이를 비교해야 된다.

**알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이고 믿는 종교가 없는 자들이 종교는 전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서 따라 경기 침체 및 문명 후진성을 일으킨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무식한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완전히 틀린 생각이다. 아마도 진실을 따라하지 않고 진실을 아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나 진실을 알고 있어도 욕망과 공상을 따라하고 싶어서 진실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단 벌써 많은 근거로 입증되었던 **알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믿어야 되고 자기의 올바른 본능을 따라해야 한다.

그 다음에 **알라 하나님**의 종교는 한 개 밖에 없으며 그 종교는 바로 이슬람이다.

**알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의 나라와 국민의 상태:**

모든 인간들이 종교 한 개만 가지고 믿어야 한다. 이 한 종교는 바로 이슬람이다. 거기서 **알라 하나님**의 유일성과 위대한 특성과 전능에 대해 믿어야 된다.

또 인간들이 올바른 지침에 이르기 위하여 **알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모든 예언자와 사도들에 대해 믿어야 된다. 단, 예언자와 사도를 보여주는 근거들이 본인을 설득하게 해야 된다.

또 **알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성서에 대해서도 믿어야 되며 부인하면 안 된다.

결국은 모든 나라와 국민이 **알라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인간들이 분리되어 각 그룹들이 욕망과 공상을 따라하면 올바른 지침과 올바른 길을 잃을 것이다.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실로 너희의 공동체는 하나이며 내가 너희의 주님이거늘 항상 나를 두려워하라 \*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의 종교에서 여러 종파로 분열한 후 각 종파에 만족하고 있노라”**

{성 코란 23:52/53}

“공동체”는 종교라는 뜻이다. 즉 자기의 종교는 하나밖에 없으며 이 종교는 바로 이슬람 종교이다.

“하나의 종교에서 여러 종파로 분열하였다는 것”은 종교에 대해 믿는데 여러 종파와 개념으로 분할되었다는 뜻이다. 앞전에 나온 바와 같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해 믿는데 하나의 종파를 가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종파가 있다. 하나는 예수가 바로 신이라고 하였고, 다른 종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고, 다른 종파는 하나님이 세가지로 있는데 아버지(성부), 아들(성자), 성령님(성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비방하였다.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에 대해 믿으면 하나의 개념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경제적으로 발전될 것이다. 특히 “성 코란”에서 무함마드사도에게 제일 먼저 계시되었던 것은 **알라 하나님의 말씀 “읽어라”**이다. 이 절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지시한 최초의 말씀으로 읽는 것과 쓰는 것 그리고 지식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여! 모든 만물을 창조한 그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코란을 읽어라는 뜻이다.

즉 교육에 대해 촉구함에 따라 여러 생활 분야에서 정교하고 세련되게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계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친구와 추종자들이 위에 나온 성 코란의 성구를 가지고 계속

노력하였는데 그때 정말로 아랍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되었다. 서양인들도 아랍인들의 실력에 대해 인정하였다. 위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랍인 부족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태어나기 전 하고 태어난 후를 비교하면 태어나기 전에 전쟁이 있었고 각 부족마다 독립이었으며 서로 싸우곤 하였는데 태어난 후 이슬람 종교를 촉구하여 확산시켰을 때 부족들이 다시 연합하였고 똑같은 개념을 가졌다. 이러한 개념은 (라-일라하-일라-알라~)알라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 믿으며 알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 대해 믿지 않고 알라 하나님께만 예배를 하는 것이다.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베푼 은혜에 감사하라 너희가 서로 적이<sup>77</sup>였다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너희 마음들이 하나 되어 한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이며” {성 코란 3:103}

이 성구의 뜻은 이슬람이 오기 전 야쓰립(지금의 메디나)에는 내란과 부족간의 불화와 갈등이 만연한 상태였다. 그후 마지막 예언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통해 이슬람이 도래하였을 때 이슬람의 형제애로써 내란과 불화와 갈등이 없어지고 평화로운 도시, 관명의 도시(알마디나 알무나와라)가 되었다.

그런데 올바른 종교가 없었으면:

- 가장 비참하고 가장 사악한 피조물이 될 것이다.
  - 부패한 자가 될 것이다.
  - 두려움과 불안한 삶이 될 것이다.
  - 궁핍한 삶이 될 것이다.
  - 자신과의 싸움과 주변 우주와 싸우는 삶이 될 것이다.
  - 무지한 삶이 될 것이다.
  - 스스로를 우롱하는 삶이 될 것이다.
-



- 자신을 **알라** 하나님의 분노에 노출시킬 것이다.
- 실패하고 크게 손해 보는 삶이 될 것이다.
- 진정한 삶의 가치를 누리지 못 할 것이다.
- 연속되는 고통 속에서 살 것이다.

게다가 바르지 않은 시아파를 따르는 나라는 자꾸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를 차지하고 싶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없이 죽게 되었다.

예를 들어 제 1,2 회 세계 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고 많은 재난이 발생하였고 이어 문명의 후진성 및 경기 침체를 일으켰다.

그래서 위에 나온 질문 "**종교는 나라와 국민 사이에 전쟁을 일으킨 주요 원인인가?**

그리고 경기 침체 및 문명 후진성을 일으킨 원인인가?" 에 대해 답장은: "당연히 아니다"

단,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와 자기 공동체는 적과 싸우면 **알라**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믿음 (라-일라하-일라-알라~)을 확산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는 재난이나 파괴를 일으키지 않는다.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도 전쟁이 있으면 여성, 어린이, 노인, 군인이 아닌 자를 죽이는 것을 배제하였다. 배반도 화재로 방화하는 것, 죽은 시체를 왜곡하는 것, 죽은 시체의 기과을 찢는 것 등을 배제하였다.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용서도 잘 해준다. 메카를 입성한 후 우상을 파괴한 다음에 이주(히지라) 이전에 고문하였던 꾸라이쉬 부족에게 "가라 당신들은 자유다"라고 하면서 용서해주었다.

반면에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싸우면 부패를 위하여 싸우는데 노인, 어린이들, 유아들, 임산부들, 여성들 다 죽인다.

그래서 이슬람 종교는 진리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하는 주요 원인이다.

## 알라 하나님께서 왜 피조물을 창조하셨는가?

간단히 대답하면 **알라**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 믿고 **알라** 하나님 외 다른 신을 예배하지 않고 **알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자기 명령에 따르고 거역하지 않는 목적으로 창조하셨다.

사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알라** 하나님께서는 전능, 위대한 특성, 완벽한 지혜를 갖고 계신다.

그래서 누구든 올바른 본능을 가졌다면 완벽한 지혜를 가지신 **알라**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알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 것인데 그 인간은 이로 하여 기뻐해야 된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고아인자를 발견하여 그를 보호하고 방황하는 자를 발견하여 그를 인도하고 가난했던 자를 부유하게 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알라** 하나님의 이름 중에 (진리)라는 것이 있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진리만 승리하고 절대적인 정의를 이행하시면서 누구든 부당하지 않게 하신다.

또 **알라** 하나님의 이름 중에 (자비로우심, 자애로우심)이라는 것이 있다. 여기서 자비는 **알라**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이다. 또 **알라** 하나님의 완벽한 특성 중에 언급해야 되는 것:

- |      |      |      |
|------|------|------|
| - 지혜 | - 의지 | - 전능 |
| - 지식 | - 정의 | - 자비 |

**알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당을 창조하셨고 징벌을 하기 위한 지옥을 창조하셨다. 그것은 자기 의지에 따르는 것이다.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그 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니라" {성 코란 22:14}

"주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창조하시고 선택하시나니" {성 코란 28:68}

그래서 **알라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현세는 그냥 시험기간으로 간주되며 명령대로 복종하면 영원한 천당으로 가는 반면에 **알라**을 거역하면은 징벌을 받기 위해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알라 하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왕과 노예, 신자와 무신론자를 창조하셨다. 시험기간인 "현세"때 어떻게 할 것인지 보시고 하는 행위에 따라 천당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을 결정하시기 위해서다. **알라 하나님**의 의지는 전능이 있어야 이행될 수 있으며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다. **알라 하나님**의 의지는 완벽한 지식이 있어야 이행될 수 있으며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다.

정신적으로 **알라 하나님**의 완벽한 지식을 보여주는 근거:-  
 가) 창조주이신 **알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며 그 마음들이 선이나 악, 믿음이나 위선, 성실이나 위선을 갖고 있는 지 잘 알고 계신다.

나) 창조주이신 **알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예배할 때 경건 강도를 알아야 강도에 따라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다.

다) 창조주이신 **알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착한 행실을 하기 전 얼마나 선행이 좋은 의도로 하였는지 알아야 그 선행에 따라 그 인간이 **알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다.

**알라 하나님**께서는 진리만 승리시키고 절대적인 정의를 이행하시면서 누구든 부당하지 않게 하신다.

그리고 왜 **알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예언자를 기적으로 지원해주시면서 보냈을까?

가) **알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공동체들에게 **알라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이다.

나) **알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들에게 천당을 예시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자들을 보낸은 복음을 전하고 경고하며 인간들이 **알라**님께 논쟁치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이나 **알라**님께서는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시노라" {성 코란 4:165}

거기서 **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논쟁을 자기의 예언자와 선지자한테 맡기신다.

이것은 **알라 하나님**의 특성인 "정의"를 보여주는 근거이다. 거기서 예언자나 선지자에게서 신탁을 알지 못하고 예언자나 선지자를 보내는 것을 끊었을 때 죽었거나 제 정신이 아닌 미친 사람이나 어린이들이 죽었으면 **알라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고 바로 천당으로 가는 것이다.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러가로되 **하나님**의 예증이 있었노라 그러므로 그분의 뜻이 있었더라면 실로 그분께서 너희 모두를 인도하셨으리라<sup>78</sup>" {성코란 6:149}

단, 이슬람에 대해 무식한 자와 모르는 척하는 사람의 차이를 잘 알아야 된다.

별써 이슬람과 **알라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거절한 자는 핑계가 없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무식한 자들:

가) 진리에 대해 알고 싶은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자는 예언자나 선지자에게서 신탁을 알지 못하고 예언자나 선지자를 보내는 것을 끊었을 때 죽었거나 제 정신이 아닌 미친 사람이나 어린이들이 죽은 것처럼 **알라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고 바로 천당으로 가는 것이다.

나) 모르고 알고 싶지 않는 자는 모르는 척하고 거절한 자와 같이 핑계가 없다.

---

<sup>78</sup>그들 아랍 불신자들에게 말하라, "만일 너희에게 예증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예증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어 너희 모두를 믿음으로 인도하셨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믿음과 불신을 스스로 택하도록 자유의 선택을 두시어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도록 하셨느니라

결국 **알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아름다운 천당으로 가게 해주시고 그분을 거역하는 자는  
노여움을 받게 되어 지옥으로 가게 하실 것이다.

## 인간이 알라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권리 및 알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서 받아야 하는 권리

원래 인간들이 알라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권리가 없어야 되는데 알라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게 해주셨다.

알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서 받아야 하는 권리와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권리를 알기 위해 우선 다음의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말씀을 언급할 것이다.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다.

"모아즈여: 알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서 받아야 하는 권리와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권리를 알고 있느냐?"

모아즈가 말했다.

"알라 하나님과 자기의 사도께서 더 잘 알고 계시오"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다.

"알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받아야 하는 권리는 그분에게 순종하고 예배하며 그분 외에 다른 신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인간들이 알라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것이 그분 외에 다른 신을 예배하지 않는 자를 고문하지 않다는 것이오"  
{보카리가 전하였다.}

알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서 받아야 하는 권리 간단히 말하자면:

가)유일성:

-인간들이 **알라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되며 다른 신을 예배하면 안 된다.

- 인간은 **알라 하나님**께서만 완벽한 특성과 전능을 가지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 인간은 **알라 하나님**께서 우주를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 나) 예배 및 순종

인간이 **알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알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해야 되며 금기하셨던 것은 하면 안 된다.

인간들이 **알라 하나님**께 받은 권리는: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말씀하셨듯이 **알라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분 외에 다른 신을 예배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천당에 이를 것인 반면에 그분을 거역하거나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심판의 날에 징벌을 받아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거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심으로 충만하시니라**" {성 코란 4:70}

## 결론

책의 내용을 보면 창조주이신 **알라 하나님**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알라 하나님**의 유일성과 위대한 특성과 전능이 확인 되었다.

그런 글을 보여주는 근거들도 나왔다.

이어 **알라 하나님**께 극대화 및 영광을 드려야 되며 비방하는 거짓말쟁이들이 **알라 하나님**에 대해 하였던 말을 믿으면 안 된다.

또한 **알라 하나님**께 극대화 및 영광을 드리는 방식은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가져오셨던 이슬람 종교 밖에 없다.

따라서 이슬람 종교를 선택하여 **알라 하나님**께만 예배하여야 된다.

이슬람이 맞는 종교이며 최후의 성서이고 최후의 예언자와 사도들인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전달하였다.

그래서 **알라 하나님**의 종교인 이슬람에 대해 믿으면 현세와 내세 때 구원될 수 있다. 게다가 이슬람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발전과 경제 번영과 문명의 진보에 이르기 위한 길이다.



## 교훈

**알라**의 존재, 유일성 및 셀 수 없는 은혜를 확인 후, **알라**이 제일 먼저 이슬람 은혜로 인도해 주셨으니 우리는 아래의 사항을 해야 한다 :

### 1- 알라에 대한 사랑

**알라**께서는 마음이 좋아하고 인정하며 그리워하는 신이다. 왜 아니겠어? **알라**은 우리를 창조하신 신, 아무 것도 아니었을 때 무에서 창조해주시며 마음, 인식, 영혼과 인체 등 셀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 그렇지만 **알라**이 주신 은혜는 셀 수 없는 것이다. **알라**은 자비로 인도해 주셔서 신의 유일성과 선진자에 대해 믿게 되었으며, 제일 좋은 인간으로 만들어주셨다. 무함마드선진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공동체이다. 그뿐만 아니라 **알리**은 그 분과 선진자들, 추종자들의 사랑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주셨다.

**알라**께서는 자신을 제일 아름답고 위대한 특성으로 묘사하시며, 자신에게 제일 좋은 이름을 지으셨다.

**알리**은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느님이시다. 왜냐하면 **알라**은 자비를 노여움보다 더 많이 가지고 계신다.

**알라**께서 진리이며 아무리 작은 인간이라도 절대 누구도 부당하지 않게 하시고 괴롭히지 않으신다.

**알라**께서는 그분에 대해 믿는 자들과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관대한, 친밀한... 등과 같은 **알라** **하나님**의 이름과 특성이 있다.

**알라**께서는 분신자들과 거역하는 자들과 다신교인들을 위해서 막강한, 제압하는... 등과 같은 **알라** **하나님**의 이름과 특성이 있다.

**알라**께서 유일한, 위대한, 전능한, 지식이 있는, 지혜로운, 영광스러운... 등과 같은 위대함을 보여주는 특성과 이름이 있다.

그러니 **알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며 명령대로 해야 한다.

또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도 자신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 거기서:

가)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알라** 하나님께서 제일로 좋아하시는 분이며 **알라**에게 순종하는 제일 좋은 모델이었다.

그래서, 자신보다 더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좋아해야 된다.

나)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알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진리인 이슬람 종교로 인도해주셨고 다신교와 불신앙에서 벗어나 신앙과 경건으로 인도해주시게 만드셨다.

다)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이슬람을 믿는 자기 공동체를 좋아하고 못 보셨던 자들을 그리워하신다.

그것뿐만 아니라 게다가 자기의 공동체에 대해 제일로 걱정하신다. 심판의 날 때도 자기의 공동체를 위하여 중재인으로 해주실 것이다.

## 2- 알라 하나님에 대한 영광

인간들은 **알라**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자기의 마음에 가져야 한다. 비공개적으로나 공개적으로 경건을 가져야 한다. 그 분에게 순종해야 하며 명령대로 해야 한다.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순례라 하나님의 의식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곁에 그를 위한 복이 있으며" {성 코란 22:30}

"그것은<sup>79</sup> 하나님이 상징<sup>80</sup>을 명예롭게 하는 것으로 그것이야말로 경건한<sup>81</sup> 마음의 소산이라" {성 코란 22:32}

<sup>79</sup>창조주께서 설명한 제반 규범으로 성지순례, 도살 및 도살된 고기로 예식을 행하는 일 등

### 3- 알라 하나님과 그분의 종교를 승리시킴: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신자여, 하나님을 승리시키면 하나님은 승리시켜주실 것이오” {성 코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7}

게다가 신자들 사이를 화해시켜야 하며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야 한다.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믿는 자들은 한 형제라<sup>82</sup> 그러므로 싸우는 너희 두 형제들 사이를 화해시키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은혜를 받으리라" {성 코란 49:10}

알라 하나님의 종교인 이슬람도 지키고 승리하여야 된다, 어떻게?:-

1- 다양한 언어로 (특별히 영문으로) 이슬람을 옹호, 이슬람의 신탁과 순나에 대한 책을 발행하고 세상 일주에 일반 도서관과 대학교의 도서관에 유통한다.

2- 다양한 언어로 (특별히 영문으로) 이슬람을 옹호하는 전문 인터넷 웹사이트들을 만든다.

3- 다양한 언어로 (특별히 영문으로) 이슬람에 대해 옹호하고 이야기하는 위성 채널과 라디오, 방송사, 잡지를 설립한다.

---

<sup>80</sup>의식

<sup>81</sup>따끄와: 본 절에서 따끄와는 마음을 가르키고 있다고 꾸르뚜비는 풀이하고 있다.

<sup>82</sup>이슬람의 형제애는 믿음의 결합으로써 이슬람의 가장 큰 사회 이념이다. 이 이념은 선지자 모함메드의 마지막 순례때 행한 연설에 기초를 둔 것으로 이 이념이 성취될 때까지는 이슬람이 완전한 수행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4- 이슬람 종교에 대해 욕하는 웹사이트나 방송사 등을  
방지한다.

마지막으로 **알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셀 수 없는 은혜를  
주셨으니 하루 종일 아침과 밤에 그 분께 감사해야 한다.

## 목차

머리말-----	2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b>하나님</b> 은 계시나?-----	5
본능과 본성에 따라서 우주 창조주 <b>하나님</b> 의 존재를 믿는가?-----	15
창조주이신 <b>알라 하나님</b> 의 존재를 보이는 증거들-----	19
우주를 창조하고 운행하신 <b>하나님</b> 이 두 분이나 더 계실수 있나?-----	27
<b>알라 하나님</b> 에 대해 믿으면 <b>하나님</b> 을 봐야 되는 것이며 <b>하나님</b> 을 못 보면 <b>하나님</b> 께서 없으시다는 것이냐?-----	32
이슬람에서의 창조주이신 <b>하나님</b> 의 특징-----	34
전능하신 <b>하나님</b> 의 능력, 완벽함, 지혜, 위대한 특징을 보이는 증거들-----	38
선지자와 사도들에 대한 신앙심-----	44
성서 및 종교세에 대한 신앙심-----	46
천사들에 대한 신앙심-----	47
운명 (알-파다르)에 대한 신앙심-----	48
심판의 날에 대한 신앙심-----	49
올바른 치침은 어디에 있을까?-----	54
<b>알라</b> 의 마지막 사도인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신탁-----	55
<b>알라 하나님</b> 의 마지막 사도인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신탁을 보여주는 증인-----	57
첫째: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교리-----	57
둘째: 하람 성원 - 카으바-----	59

셋째 : 사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혈통과 특성과 신탁-----	64
넷째 :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려와 귀와 마음으로 언제나 <b>하나님</b> 을 염원한다-----	68
다섯 째 : 현세의 매력에 대해 거부감 및 싫음-----	70
여섯 째 :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신탁 밝힘 후 이교도들과 불신자들의 태도 및 <b>알라 하나님</b> 의 이슬람 승리-----	71
일곱 번째 :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기적들-----	73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사도임을 보여주는 기적들 중에 다음에 일어날 과학적 사실을 1400 전 이미 예언된 것이다.-----	75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사도임을 보여주는 기적중 : 지각 기적들이다.-----	77
달이 둘로 분리되는 기적-----	77
여덟 번째 :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예절-----	80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캐릭터 및 로직-----	83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완벽한 모습, 용모-----	85
최후의 예언자와 사도인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 대한 천재들의 인정-----	90

다양한 분야에서 전공한 학자들이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알라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함--93

그들이 왜 이슬람에 대해 믿었을까?-----97

**알라 하나님** 존재에 대해 믿는, “모세”의 예언직에 대해 믿는 유대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예언직에 대해 믿을 수 밖에 없고, 올바른 생각 및 본능을 가진, “예수”의 예언직에 대해 믿는 기독교인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예언자에 대해 믿을 수 밖에 없다.-  
-----100

무함마드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마지막 사도이며 그분 후에 예언자나 사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및 근거들-----103

살아남은 그룹-----117

종교는 나라와 국민 사이에 전쟁을 일으킨 주요 원인인가?  
그리고 경기 침체 및 문명 후진성을 일으킨 원인인가?-----118

**알라 하나님**께서 왜 피조물을 창조하셨는가?-----122

인간이 **알라 하나님**께 받아야 된 권리 및 **알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서 받아야 된 권리-----126

결론-----128

교훈-----129